

야매예찬

경기남부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활동가 활짝학교 결과자료집





목차

생활문화 활동가 활짝학교를 열며 최진호(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팀장)	5
야매예찬 민병은 (활짝학교_남부 담임)	6
01 입학식 아닌 만남식 김원익, 배영은	8
02 관찰과 발견 고재열	14
03 짠 짓의 미학 임재춘	18
04 제 땅 말 _생활에 밀줄 곳기 고영직	42
05 사람과 장소를 만나다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참좋은수다,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동네형들	53
06 좋은 질문과 응답능력 이재경	65
07 나를 바꾸는 10분 임재춘	99
우리가 기획한_졸업식 아닌 출발식	113
활짝학교를 마치며_ '난, 활짝학교에서 퍼줄 한 조각을 찾았다.' 바람(권성혜)	118

이 자료집을 읽는 Tip



는 글을 이끌어가는 화자로, 활짝학교를 담당했던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의 정다은이다.
사업 담당 당사자로 또는 관찰자로 매회 흐름을 기록하였다.

활자화되면서 소실되는 맥락을 메우고 그 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을 따라 읽어가면 좀 더 매끄럽게 읽힐 것이다.

처음해보는 요청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감해 하던 모습과 달리 열심히 기록해 줬다.

똑똑! 두드리면 생활문화가 활짝~

<활짝학교>는 경기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심화과정입니다.

2021년에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남부(수원)/ 북부(양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생활문화 활동가 활짝학교를 열며 | 최진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팀장)



‘생활문화 활동가 활짝학교’는

기존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해왔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실험 과정입니다.

활동가 양성을 통해 정책적 개념의 영역이었던 ‘생활문화’가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또한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자가 수동적 대상이 아닌, 수업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함께 수업을 듣는 서로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10주차의 기간을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과 과정 사이사이의 풍부한 피드백, 그리고 선진지 탐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의 욕망 파악에서 비롯된 일상 속 활동들이,

지역과의 관계 맺기 안에서 ‘동네’의 문화로 발화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생활문화의 잠재력과 중심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각자 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딴 짓’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향유를 넘어 생활문화의 주체로서,

개인과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생활문화팀은 앞으로도 생활문화 활동가들의 걸음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野味禮讚 야매예찬 | 민병은 (활짝학교 남부 담임)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이 6년 동안 지속된 배후는 뭐였을까?

뜬금없이 떠오른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경우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3년을 평균 수명으로 본다던 그 배를 이어 온 셈이니 해부직한 질문이기도하다. 물론 6년을 작정하고 채운 것은 아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올해는 갈까? 없어질까? 생존 여부를 되물었어야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생활문화 활동가들의 역량을 돋구는 자리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재단과 운영단체 그리고 컨설턴트들의 필요를 공감하고도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경기재단 생활문화팀의 끈기도 대단했다. 지금에서 보면 6년을 쭉 내달랐던 것 보다 한 해 한 해 이어달릴 수밖에 없는 굴곡진 상황들이 필요와 애정의 평면적을 더 넓힌 것 같다. 결론적으로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6년의 배후는 잘 모르겠고, 생활문화 활동가 활짝학교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6년이라는 불가역적 시간 덕이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활짝학교를 기획하면서 북부 활짝학교 심한기 담임과 3개월의 논의 시간을 가졌다. 어떤 내용으로 과정을 채워갈 것인가. 생활문화 지원사업 경험자로 참여 자격을 한정했으므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갈 것을 기대하면서 내용을 구성했다. 고백하건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많았었다. 예를 들면 급부상하는 메타버스도 좀 알아야할 것은 생각에 기술변화 항목도 넣어보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변화 만큼 생활과 밀접한 것이 또 있을까, 개별적 활동에서 시작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공론장도 필요할텐데... 등등. 그러다가 그동안 플랫폼사업에 다년간 참여한 컨설턴트와 현장 기획자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쳐두고 활동가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집중한 것 같다. 결국 출발지점을 선택하고 달려 나갈 사람은 참여자들 당사자이므로.

우리가 약속한 만남의 시간은 열 번이다. 한 차례 길게 잡아 서너 시간 만난다고 한다면 총 40시간이다. 주 한 번씩 이라고 헤아리면 두 달 반 동안 이어가는 시간이다. 누군가에는 짧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매회 제시되는 주제는 참여자가 미리 생각해보고, 직접 말하면서 채워지기를 바랐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몇 번에 걸쳐 만날 것이냐의 시간이 아닌 강도의 문제였다. 어떤 이야기는 자기 경험을 꺼내놓고 나눌 때 내용은 농밀해진다. 자기의 경험을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가치관이나 윤리적 관점이 드러나는 진짜 삶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어디 쉽겠는가.

‘야매로운’ 자유

여행 컨셉의 만남식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다르게 진행될 ‘장’임을 알리는 인식전환의 훌륭한 컨셉이었다. 낯선 곳에서 무언가 일어나버릴 것 같은 사건, 따라 붙는 호기심과 약간의 흥분 이런 것 말이다. 우연찮게 여행 컨셉으로 시작된 만남식이 여행감독자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강사로부터 ‘관찰과 발견’이라는 주

제로 이어졌다. 여행에도 컨셉이 있다. 누가 여행하는가,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에 따라 같은 곳이 다르게 만나 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딴 짓의 미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사업담당자가 아닌 마을 활동가도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도 좋다는 것에 대해 신날 수 있었다. 다른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하고자 했는가. 가장 어려운 주제 아니 화두다. 나를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로 시작된 물음과 이에 응하는 대답 속에 숨어있는 다른 모습도 보였다. 이어진 ‘좋은 질문과 응답능력’ 시간에는 실제 이루어졌던 현장리서치 방법과 현장에서 있었던 각자의 질문지를 들고 참여했다.

이때 썸 되자 사적인 고민에서 마을 문제영역까지 폭넓은 이야기로 여러 현장이 펼쳤다 접했다 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기되는 질문 속에 개인의 욕망을 살필 수 있었다. 새롭게 마련할 자기 작업 공방, 준비 중인 마을 공유 공간, 마을주민들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자기 가능성 등.. 딴 짓(거리)가 주는 흥미로움이 야매라는 말로 가벼워지면서 참여자들은 속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잘하지 못하지만 해볼게요! 활짝학교 참여조건이었던 생활문화 활동 유경험자라는 이름표가 주는 강박이 야매로 풀린 순간이다. 야매의 위력은 마지막 출발식까지 뭔가를 해보자는 으쌰으쌰한 힘이 아니라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안도감으로 스미듯이 이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자격증이 있어야 뭘 해보자는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는 일상을 말하면서 조차 전문가여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되었다. 정리전문가, 텃밭전문가, 밑반찬 전문가... 생활의 달인이 등장하며 정점을 찍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꺼려지고 더구나 나서서 뭔가를 해보겠으니 같이하자는 의견을 낸다는 것은 민폐일까 두려웠다. 그냥 관객으로 고객으로 소비자로 있을 때가 점차 편해졌다. 야매는 다른 가능성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야매라 쓰고 ‘해보지 않아 어설프나 해보는 것, 누가하든 충분히 지지함을 포함’을 의미했다. 마지막 출발식(졸업식이 아닌 출발식이 된 이유는 이날 분위기에 맞는 선곡 닷? 덕?이다) 구상과 실행을 즐거이 해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의 야매로운 재능(기술?) 덕이었다.

긴가민가의 역동

생활문화플랫폼 지원사업 6년의 배후는 잘 모르겠으나 6년의 시간은 지역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가로 싹 틔울 수 있는 배양의 시간이 되어주었다. 이 자료집은 이들 활동가들이 참여해 만든, 기획자로서 필요한 태도와 생각을 나눈 ‘활짝학교’ 진행과정의 기록이다. 낯설을 맞이하고 여기에 응답해가면서 생활문화 기획자이며 일상을 보내는 주민 당사자로서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접쳐본 시간이었다. 확고한 명분이 주는 확신이 아니라 긴가민가 사이에 생기는 여분을 즐겼다고 할까. 나는 그랬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려놓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내가 할 일을 별로 없어서 버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참여자들을 믿는 것. 실제 자료집을 출간하기 위해 그동안 참여자들이 끄적거렸던 글 몽치, 부탁해서 받은 현장 탐방원고, 나를 바꾸는 10분을 위해 스스로 작성한 글, 찍었던 순간의 사진들을 주욱 늘어놓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참여자들이 훌륭했네! 였다. 나는 또 이렇게 믿으려한다.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사이에 흘렀던 쏠쏠해진 공기를, 우리는 이것을 삼켜버렸다고. 지금쯤 멧진 괴물이 되어있으려나?

01

입학식 아닌 만남식





생활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성장 실험반, <활짝학교>의 문이 열렸다. 운영진은 먼저 처음 만나는 입학식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활짝학교 운영진과 기획팀이 모여 사전에 모임을 가졌다.

운영진은 통상적인 문 열기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환기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했다. ‘우리는 어떨 때 서로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또 다정함이 생겨날까?’ ‘낮선 자리 낮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도록 설렘을 주는 만남은 어떨 때일까?’ 참여자들이 처음 만나는 이번 자리, 그렇게 선택 된 입학식의 컨셉은 “여행”이었다.

웅성거리는 공항 입체음향을 틀어 두니 공간에 제법 활기가 띠었다. 참가자들은 라운지 카페에서 입국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이제 게이트 오픈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한 줄로 서 주세요.’

내부로 향하는 철문 앞에서 티켓에 도장을 받은 참가자들은, 압전된 멀티병커로 조심스레 발을 뗐다. 어두운 곳에서 의지할 것은 가이드의 희미한 불빛뿐. 모닥불 타고르는 소리를 둘러싼 채, 참가자들은 이내 원형으로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여행지에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곳의 공기를 마셔볼까요?’ 칙칙한 불빛 아래, 참여자들은 우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이름을 소개하기 전, 이들은 서로 입국 티켓에 적은 희망 국가를 먼저 소개했다. 크로아티아, 상상의 나라…. 등등

이후 진행된 것은 처음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친근감을 끌어내는 가벼운 게임인 끝말잇기, 그리고 설정된 상황에서 생겨날 가상의 이야기 잇기였다.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며 살이 붙던 이야기는, 어느덧 모두를 향해 발표되는 인물의 대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예를 들면 성당에서 만난 남녀의 이야기는 다른 애인이 있다는 충격적 반전으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는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말지어져갔다.

놀이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어색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그렇다면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 볼 시간. 여행 가이드는 물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 줘요’,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주고 잘 웃어줘요’, ‘타인은 나의 실수에 크게 관심 없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반응을 잘 해줘요’... 등등 참여자 개개인의 참신한 방법들이 나왔다.





두 번째 질문은 '나눔'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본인이 참여했던 재능 나눔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생활문화로 인해 만나게 된 사람들로부터 배려와 여유 등 마음의 나눔을 받은 이야기, 본업이 아닌 교육봉사를 진행하게 되며 도리어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배움과 나눔을 받게 된 이야기 등. 각자의 나눔에 대한 소회가 이어졌다.

참여자 서로의 파악이 끝났으니, 이제는 이들이 <활짝 학교>를 파악할 시간이다. 생활문화 활동가 - 활짝 학교 남부의 민병은 교장이 전체 10회차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준비사항을 공지하였다.

몇 가지의 활동과 활짝 학교에 대한 안내를 들으니 어느덧 식사 시간. 준비된 도시락과 함께, 참여자들에게는 짧은 과제가 주어졌다. 활짝 학교의 전체 과정에 대해 기대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선물 받은 노트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참여자들은 지도와 얼굴 그림 등을 그리며 빈칸을 채워나갔다.

기내식과 과제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석양이 내리는 바닷가 앞에 섰다. 멀티병커를 채우는 은은한 조명과 음악 '제주도의 푸른 밤'은 모두에게 여행의 향취를 불러일으켰다.

환영의 음악이 끝난 뒤, 가이드는 처음 도착 후 입장하기 전에 대기 시간 동안 작성했던 입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카드에는 사실 짝막한 질문 항목들과 체크 박스가 있었다.





- 나는 마음이 불안할 때 누워서 쉬는 것보다는 일을 한다 □YES □NO
- 나는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해결해야 한다 □YES □NO 등.

참여자들은 가이드가 들고 있는 체크된 내용을 듣고 누구의 입국 카드인지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의 시간 덕분일까? 참가자들은 서로를 척척 맞춰냈다.

지목된 참가자들은 자신의 여정을 소개했다. 남은 회차 동안 기대하는 것들, 찾고자 하는 것들이 진솔히 공유되었고 또한 각자 가지고 온 나눔 물건에 대한 소개 또한 이루어졌다. 조그마한 퍼즐 고리나, 직접 뜬 방석같이 소소하지만 소중한 물건들, 이 선물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갈 예정이지만 마지막 회차에 나누어질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선물과 기대를 자리에 둔 채로 여행지로부터 귀국했다.

김원익

입학식을 “여행” 컨셉으로 제안해 준 김원익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였고, 이후 연극 <까뮈의 뜨거운 겨울> <벽>, 음악극 <우리 동네>, 뮤지컬 <꽃이 피다> <안녕 김고래>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다. 현재 페테라이팅 상임 연출직을 맡고 있으며, 여러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 및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배영은

입학식을 “여행” 컨셉으로 제안해 준 배영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에서 한국음악작곡을 전공했다. 국악극 <향기장수이야기>, <달을 품은 호랑이>, 뮤지컬 <웰컴 선샤인> 등 다수의 음악극을 작곡하였으며 음악감독으로 역임해왔다.



여행 기획의 예시

주요 목적

필수인력 혹은 동반자
시행의 사전 준비
주요 인물

유적비디오 주인공
만들어 주기
이동 시뮬레이션 가능성

주요 목적

필수인력 혹은 동반자

시행의 사전 준비

주요 인물

유적비디오 주인공

만들어 주기

이동 시뮬레이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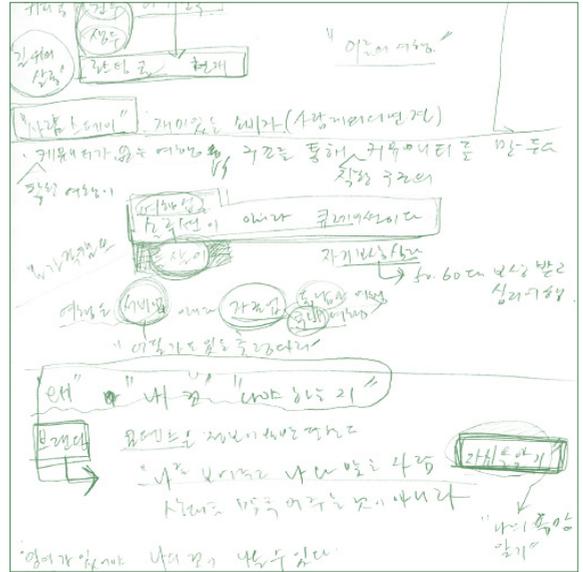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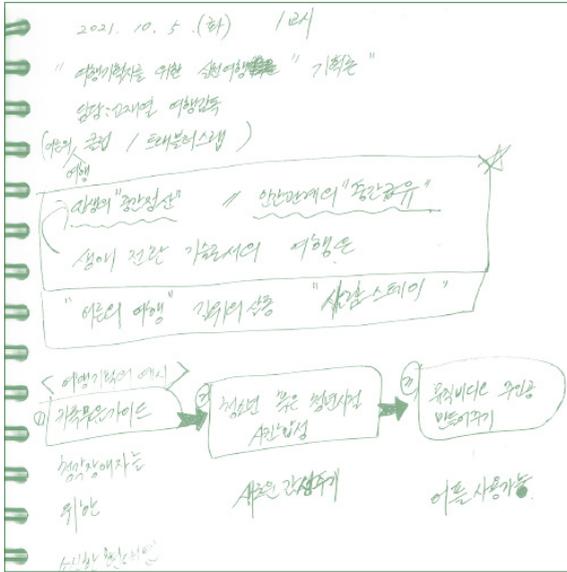
고재열 여행 감독과 함께, 여행으로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가상의 여행으로 입학식을 가졌던 활짝 학교가 실제 여행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50대부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오로지 나의 만족을 위한 소중한 ‘허비’가 필요한 시간이지요. 지나가는 시간 동안 맥락이 있는 ‘허비’를 하지 않으면, 후에 크고 말도 안 되는 부정적 의미의 허비를 하게 됩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잔잔히 인공 산사태를 내는 스위스처럼, 우리네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행은 생애 전환 기술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숙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인생의 중간 정산이나 중간 급유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감독님이 여행기획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브랜딩’이라고 한다. 콘텐츠나 마케팅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타인은 정보만 얻어가거나 인프라를 가진 이들의 배를 불리는 여행에서 끝나기 마련이라고. ‘왜 타인이 당신과 여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는 ‘브랜딩’을 강조했다.

또한 강사님은 진정한 여행이란, 정답을 찾아주는 해답(solution)이 아닌 경험의 수집과 선별(curation)을 통해 삶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여행 기획의 예시를 소개했다.





‘소심한 가이드가 기획했던 농민들과 함께하는 카톡을 통한 무음 여행’

‘어린 시절의 나의 마니또로써 나의 여행 사진에 과거의 나를 합성하는 여행’

‘나 자신을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처럼 담아내는 여행’

등등 감성을 건드리는 여행 기획들이었다.

강사님은 덧붙였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란다.

“자기 발견을 한 사람은 혼자 잘 놀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즐거웠던 기억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노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제일 창조적이기에 재미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잉여시간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된다.

고재열

20년 기자 생활을 마치고 여행 감독으로 변신한 전업 여행가. 여행 감독이자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여행자 플랫폼 (304050을 위한 여행 동아리)> 구축 중, 어른의 여행을 디자인 하는 여행 감독으로, '길 위의 살롱'을 만들어 가는 여행을 기획한다.

이주의 축제: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시간	제목	내용
17:30 ~ 17:50	활짝 열기	이야기 나눔 및 간식
17:50 ~ 18:50	나를 닮은 기획 2 (임재춘 선생님)	"딴짓의 미학" 해보지 않은 시도를 통한 또 다른 단서의 발견
18:50 ~ 19:00		휴식
19:00 ~ 20:20	나를 닮은 기획 2 (임재춘 선생님)	"딴짓의 미학" 해보지 않은 시도를 통한 또 다른 단서의 발견
20:40	글쓰기	오늘의 통찰, 소감 및 느낀점 등

Handwritten notes on a green board:

"나다음"
 상에서 장한일
 ↓
 글쓰기
 ↓
 나의 생각
 ↓
 나의 생각
 ↓
 나의 생각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사람인가요?”

임재춘 강사님의 질문에, 각자의 개성 넘치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로맨틱 코미디 속 주인공의 친구 같아요, 블랙 코미디요, 추리물이요, 뻔한 일일 드라마 같아요... 가지각색의 답변 속에서 이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슬쩍 넘겨짚을 수 있었던 것은 덤.

“우리는 예술이라 하면 어렵고, 멋지고, 대단한 것들을 떠올리곤 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내린 정의가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언어화된 욕구나 표현은 어떤 공연이나 작품만큼이나 예술적이죠.”

강사님은 이어 말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의심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가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실행을 통해 실험, 곧 문화적 실천에 이르고 삶에 대한 것들이 명료해지는 일종의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문화기획은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자기갱신을 삶을 위한 것이지. 이러한 전제하에 ‘생활문화’는 마침내 주요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생활문화의 방향성이란 자기 의심과 설득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나는 과연 나를 알 수 있을까?”

“이번 일주일 동안 혹시 이상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답들이었다. 나무에 새들이 잔뜩 앉아 있는 모양이 기시감을 줬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과가 풍성히 매달려있더군요.. 오랜 인연과 이야기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고민의 해답을 얻은 적 있어요. 강사님은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 ‘직관’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삶과 일상에서 질문의 감각을 열어놓고 사는 것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되곤 하는 것이 바로 직관이죠. 저는 가끔 영감을 얻기 위해 책이나 신문을 봐요. 특히 관심 없는 부분부터.”

‘딴짓’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강사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혹은 나의 관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했다. 나의 행동, 생각, 말에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관성은 생각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참가자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자기소개 숙제를 받았다. 자유 매체로, 자기소개에서 ‘언어’를 빼도 된다. 수업의 과정 또한 오는 길 자체가 프로젝트가 되도록 새롭게 생각해보는 숙제는 덤. 강사님의 자기소개를 예시를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말로 수업을 맺었다.

“인생은 미친 짓의 기억으로 위대해진다.”



자기소개의 주요 키워드를 작성하기



딴짓의 미학 | 임재춘

임재춘 : 자기가 쓴 글에서 중요한 문장, 부분, 단어. 그걸 여기 써주시는 거예요. 한번 쪽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중에서 내가 여기서 쓰고 싶은 것들을 귀납적으로 공유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이나 잘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길 해도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그죠? 이 ‘잘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소개를 잘 하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느낌으로, 축이 오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쫘! 이런 축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화계 안에서도 그게 되게 많아서, 꼭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생성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문장으로도 알고, 그런데 생활문화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주체로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조금 더 멋지게 살아간다’ 내지는 ‘문화적으로 살아간다(이 말은 상당히 가까운 말이거든요)’는 말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자기 것에 대해 중심으로 몰입하면 되거든요. 나는 어찌고저찌고 간에, 그것에 대해 I don't care 할 수 있는 감각과 힘을 기르는 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지향해야하는 가치이자 목표일 것 같아요.

생활문화 활동가 또는 생활문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주체적인, 주도적인 주민으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감각들을 스스로 계속 들끓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고,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뭐 때문에 들끓지 몰라요. 그러한 연속들, 감각이 쌓이다 보면 뭘 해도 밥을 해도, 그런 실천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작들을 자기 이야기 속에서 꺼내보는 경험을 해보려고 합

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걸 여기에 아무데나 한 번 나와서 써보시겠어요?

자, 토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리 # 어쩌다 도전 #지구인의 놀이터

토리 :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여행을 가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어디를 꼭 가야되고 하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애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 하고. 이런 생활만 계속 2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계속 가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생활을 하다, 몸이 그 당시 살짝 안 좋기도 해서 그냥 그만 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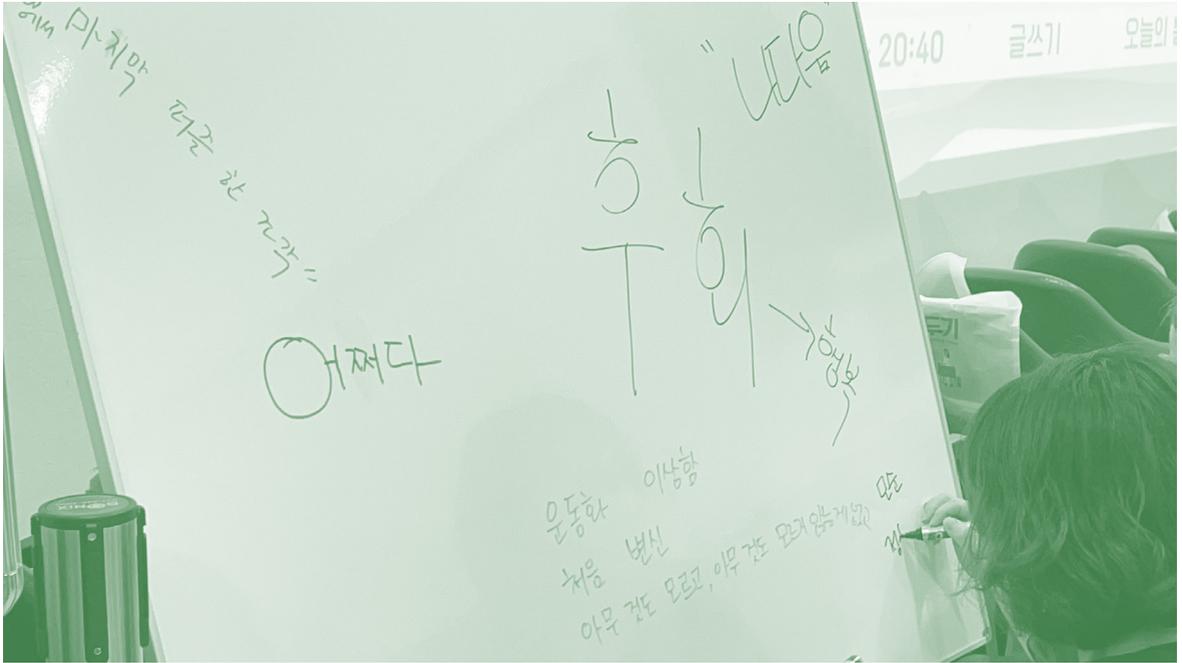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이 있었고, 취미로 하고 있던 도자기를 들고 어디를 다녀볼까? 하다가 [참좋은수다]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도 정말 어쩌다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같이 있어볼까요? 같이 놀아볼까요? 하는 말에 그럴까요? 한 거죠. 그냥 조금만 나와서 시간내주면 돼요~ 해서 그럴까요? 하다가. 저는 정말 회사만 다니다가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것 같고, 살짝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발을 디뎠던 [참좋은수다]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게 된 거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나? 그래 해보자 해보지 뭐. 이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었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작가까지 된 거예요. 저에게 작가라는 네임을 붙여준 거죠. 도자기 하니까 도자기 작가님~ 쌤~ 처음에 이렇게 불리는 게 어색했거든요. 내가 작가라고? 내가? 작가는 되게 예술적인 사람이고 뭔가 큰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작가고 쌤이지 뭐 하다가 자꾸 작가님~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붙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어쩌다가 작가가 되었다고 소개를 해요. 작가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나에게 이런 소질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내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액션이 다르잖아요. 그런 액션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열심히 해주는 거죠. 이제는 더 깊이 빠져들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 뭐 하는 거야? 거기는 어떤 회사야?’ ‘회사는 아닌데 내가 마켓도 하고 전시도 하고 강의도 좀 하고. 나 되게 잘 놀러다녀’ 하면 ‘그게 무슨 일이야?’ (하고 되물죠) ‘나 회사원이야



각자 준비해온 자신의 이야기, 참가자들은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칠판에 적었다. 그리고 참가자 개인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루틴대로 살다가 같이 놀아볼래? 이야기하는 언니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들과 함께 놀다 보니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어쩌다 보니’ 도자기 작가가 된 토리는 ‘모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참 많은 참 좋은 수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나 은행 다녀 나 어디 다녀 이렇게 한 마디가 아니라, 설명을 하면 앞에 서두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재밌는 거 해' 이라고 끝내거든요.

몇 년 동안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많기도 한데 그보다는 거기에 조금 더 빠져 들게 되어서 [참좋은수다]의 조합원으로도, 강사로도 자꾸 불러주셔서 활동을 해요. 강의도 하고, 전년도 제작년부터 해서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로웨이트 상점인 [지구인의 놀이터]에 지분이 1/4 있어요. 1/4 사장이에요. 또 어쩌다 보니까 동탄에 공방이 하나 생겨서 올 겨울부터는 이것저것 하고 짬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공방은 제가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내년 저의 목표고요.

내 머리는 4분할로 나누어져 있어요. 1/4은 지구인의 놀이터로 가득 차있고, 1/4은 참좋은수다 일로 가득 차있고, 1/4은 집안일로 가득 차있고, 나머지 1/4은 작가로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런 걸 짜다 보니까 저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옛날에는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할 일은 계속 많지만 언제 퇴근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딱히 퇴근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이 없으면 집에 가고 일이 많으면 8~9시에 집에 가고 집에 가서도 12시~1시까지 일하고. 이런 일 하는데도 전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가 아니라 '해야지'로 바뀌는 그런 단계고요. 앞으로는 공방에 힘을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임재춘 : 토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아마 그때가 지금 말했던 어쩌다 보니 [참좋은수다]를 알게 된 때였

을 거예요.

토리 : 어찌다 보니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이란 사업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의 지금 현재는 잘 해내고 있지만 그 부분도 잘 몰랐고, 서로 엄청 고생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했었던, 1년차가 그랬었죠.

임재춘 : 그래서 잘 한 것 같아. 몰라서.

토리 : 몰라서 엄청 힘들어했는데, (힘들어하는걸) 그걸 서로 아니까 서로 토닥여주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여긴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차에 다시 한 번 도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나쁜 때를 많이 묻히고(?) 살았던 사람이라, 삶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던 사람이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면 언니들은 통쾌해 하세요. 하지만 본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 못해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욕)해줄까?’ 하거든요.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모르겠어요. 4년차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고요. 3년차에 끝내는 줄 알았는데 5년차까지 있다고 그래서 그래, 일단 4년차 끝내보고 얘기 합시다 이랬어요.

임재춘 :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데, 하나는 정말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활문화, 문화에서는 우리가 ‘딴 짓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생각보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튜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다 모른다는 팩트라기 보다 태도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기획서, 거의 99.9% 기획서들은 사실 내가 좀 아는데, 이거는 이거야 이런 기획서가 많아요. 매력이 없단 거죠.

기본적으로 예술이란 것은 질문을 빼놓고 예술을 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는 것은 가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삶을 알아요? 모르죠. 심지어 우리가 어떤 기획을,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될 하겠다는 것은 미리 정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설 같은 것들, 그것에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획서들이, 기획자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확신들을 학습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획서를 쓰다 보니까 그 기획서들이 다 후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알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잘 이야기해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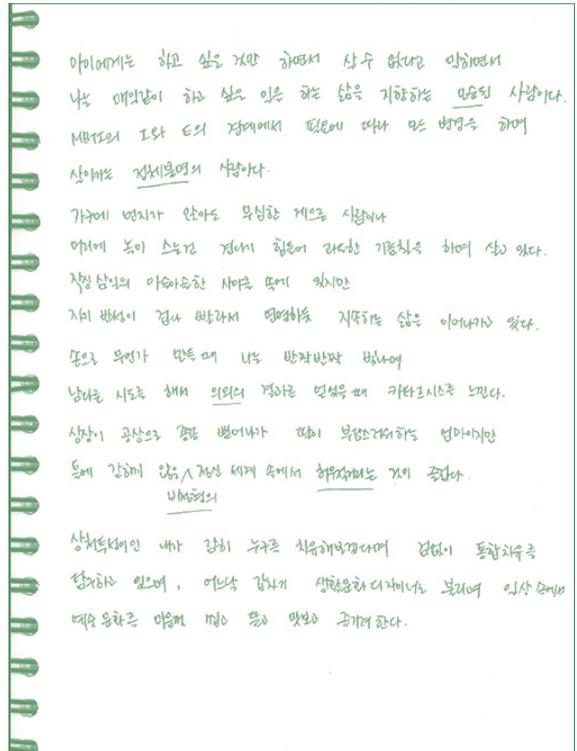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예술은 뭐고, 나는 뭐고, 생활문화는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강의를 되게 많이 해요. 성의 있게 소수를 모아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이야기 속에서 기획이란 것,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다는 영감이나 단서들이 나와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들에 대한 욕구가 구체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빠져버리거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지적으로 이루어지면 팽창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들은 있죠. 있는데, 누구나 하는 질문들. 정말 내가 궁금한 이야기들은 거기서 빠져버리다 보니까 좋은 기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에 대한 논의는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나 예술을 이해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별나씨 #허우적거리는 모습 #정체불명 #의외 #비정형

별나씨 : 저는 써놓은 거 읽을게요.

‘아이에게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나는 매일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지향하는 아주 모순된 사람이다. MBTI의 I와 E의 경계에서 필요에 따라 모드 변경을 하며 살아가는 정체불명의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가구에 먼지가 앉아도 무심한 게으른 사람이나 머리에 마음에 녹이 스는 건 견디기 힘들어 과도한 기름칠을 하며 산다. 작심삼일의 아슬아슬한 사이클 속에 있지만 자기반성이 겁나 빨라서 연명하듯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손으로 무언갈 만들 때 나는 반짝반짝 빛나며 남다른 시도를 할 때 의외의 결과를 얻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상상이 공상으로 종종 뻘어나가 딸이 부담스러워하는 엄마지만 틀에 갇히지 않는 정신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즐겁다. 용도를 잃어버린 물건을 물건의 쓸모를 찾아주면서 나의 쓸모를 발견하고 있다. 상처투성이인 내가 감히 누구를 치유해보겠다며 겁 없이 통합치유를 탐구하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생활문화다 사이너로 불리며 일상 속에서 예술문화를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 한다.



임재춘 : 과도한 기름칠? 이를테면 뭐예요?

별나씨 : 과도하게 책을 많이 읽는다? 제가 책을 어떤 식으로 읽냐면, 한 권을 읽다가 그 책에서 궁금한 게 생기

면 또 그걸 굉장히 찾아보고 또 읽고 줄줄이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계속 피곤할 정도로 책을 읽고. 그리고 다 큐 이런 것도 피곤할 정도로 보고. 좀 내가 생각하기에도 과도하다 생각하는데도 이걸 못 놓는.. 그림책을 원래 좋아했었고 그림책이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생각하기 좋았거든요. 최근에는 환경에 관한 책도 좀 읽고.

임재춘 : 최근에 가장 마음이 흔들렸던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줄 만한.

별나씨 :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책이 『떨어질 수 없어』라는 책인데. 그게 약간 쓸모하고도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신발을 처음 구입한 어떤 소녀가 신발을 잘 신고 놀다가 신발 한 짝이 찢어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신발 두 쪽을 한꺼번에 버리거든요. 그 신발이 쓰레기장에 나뒹구는데 누가 멀쩡한 신발 하나를 챙겨서 들고 가요. 그리고 양말도 한쪽 가져가고. 그걸 깨끗이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있었는데, 발레를 좋아하는 어떤 소녀가 다리를 잃은 소녀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되어서. 그랬고 제일 마지막에 반전이었던 게 그 찢어진 신발도 꿰매져서 꽃병으로 쓰인 사진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때가 나의 가치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때,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그 사람과 별개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책이었어요.

임재춘 :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글, 이런 걸 해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기획도 그래요. 기획서를 보면 사람을 닮아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자체가 안 드러나는 게 99.9%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있는 기획서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더라는 느낌이 있어요. 주디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의 글은 기획서에도 그래요. 그리고 토리처럼 자기가 궁금한 거나 조금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디 같은 사람이 쓴 기획서, 아마 토리나 바람이나 깔마나 별나씨나 다 쓰는 자기 언어로 기획서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획서도 사실 이렇게 쓰셔야 해요. 그래야 좋은 기획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빼고 계속 누구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순간 이미 문화가 빠져버리는. 우리가 만든 생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별나씨는 사슬처럼 이어지는 독서법으로 머릿속에 ‘과도한 기름칠’을 하는 걸 즐긴다. 그녀가 최근에 읽은 추천 도서는 찢어진 신발에 대한 책인 ‘떨어질 수 없어’.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한다.

책 이야기가 나오자 참가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추천 도서들이 튀어나왔다. 나의 보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 읽다가 눈물이 쏟아지게 만든 책, 누군가의 경험을 토해내듯 적어낸 책...

활 플랫폼, 마을 문화 될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사람의 존재, 기획서를 쓴 사람, 기획서라 생각하지 말고 글쓰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첫 번째 대상. 이 기획서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빠졌다 하면 문화예술이 성립이 안되는 거죠. 예술 교육적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생활로써의 문화가. 거기서 내가 빠졌는데 무슨 기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언어가 없는데 누구의 언어를 경청해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많은 기획의 대부분, 많은 사람을 만나다 하더라도 그 기획의 대부분은 경청하는 데서 시작해요. 경청이라는 말이 흔한 말인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뭐하고 놀지?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네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듣기를 안 들어. 그러니까 기획이란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 필요하고 꼭 왕도는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떠벌리는 거라고. 다수에게 떠벌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안전하단 거거든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언어대로 자기 이야기를 다 꺼내놓지 않아요. 내 언어 향아리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 계속 같은 뚜껑만 열어서 찍어먹어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술 담그는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술 담가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간히 발효가 되는 건지 술이 되는 건지 계속 찍어 먹어봐요. 그럼 술이 망해요. 술도 그 안에 균?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미생물들이 그걸 바로 알아차려요.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술이 삭아버려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향아리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걸 얼마까지 밑에까지 흔들어서 꺼내도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안전해야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안전하지 않으면 꺼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이야기 대화라던가, 결국에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극이나 무대와 공간과 이런 것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얼마만큼 그 안에서 건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안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가 나아가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경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진 않잖아요. 안전하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다보면 그 안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거죠.

흥미로운 게 이렇게 활동을 오래하다 보면 문화가 있어요. 활동의 문화. 여기는 뭐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가치로써 활동을 하는 이유. 물론 지금은 내 얘기를 중심으로 말이나 글의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일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술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확장성을 가지면 소멸한 가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확장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의 완성도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축적됨으로 인해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서사를 주저 없이 얘기하다 보면, 이 문화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 고상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기 삶의 주체, 자기가 겪은 일의 주체, 당사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말로는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만져가는 거죠.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생활문화라고 하면 삶의 당사자성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장을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교육철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성장이라는 게, 아이를 키워보신 분도, 아니신 분도 있을테지만 그렇게 자라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 우리가 점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경험인데 그런 건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되잖아요. 그런 실천들을 할 때 어느 순간 뻥하고 쌓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모습도 다 다르고, 누구는 그냥 자다가 머리를 딱 관통하고 누구는 기획서가 달라지고, 그런데 한번 머리가 뻥 때려진 사람들은 기획서가 다르긴 하죠.

저는 최근에 본 책에 지하철에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살림 비용』이란 책 들어보셨어요? 데버라 리비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 그냥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승전결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계속 토해내는 이야기인데, 작은 책이에요. 어떤 느낌이나면 그냥 누구나 자기가 겪은 걸 글로 다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토해내는 게 다 내 얘긴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어느 순간 느꼈던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책이 그때의 감정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보면서 밀도 끝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저 아줌마 왜 우나.. 그런데 그냥 눈물 닦고 책 보면서 우는 게 이상하니? 이러면서 거기서 코도 한 번 풀고, 이 책과 저는 『랩걸』이라는 책을 최근에 연초에 되게 흥미롭게 많이 봤었는데 비슷한 느낌의 책이에요 약간 톤은 다르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섬세하게 자각하고 생각하고 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의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삶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에서 모든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생활문화라는 건 무슨 일이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아느냐 모르느냐 감각의 차이예요. 예민함이 좀 필요해요. 그런 예민함



강사님은 많은 기획의 대부분은 '경청', 곧 타인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하다는 감각이 필요하고, 커뮤니티란 결국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또한 이런 신뢰에 기반한 반복적인 안전함 내에서는 또 그 자체만의 문화와 공동체가 자라나는 법이라고. 그녀는 또한 강조했다. 이런 개인의 '성장의 순간' 들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우리는 감각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것.

그녀는 또한 강조했다. 이런 개인의 '성장의 순간' 들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우리는 감각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것.

들이 갑자기 생기진 않으니까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예술가들이 다 그 예민함을 가지고 있죠. 아주 작은 예민함인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작업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딱딱하게 얘기하면 실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영똥한테서 찾지 마시고 나에 대한 소개, 내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사소한 일들에도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둘째가 탁구 칠 줄도 모르면서 학교에서 탁구대회 신청했거든요. 탁구공을 준다고 해서 나가기로 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좌절하지 말란 뜻에서 탁구공이나 열심히 받아오라 했는데 애가 예선 탈락을 했죠.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예선 탈락했다고. 그렇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예선을 통과하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애가 거기서 완전 탁구에 푹힌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텐데 애가 갑자기 탁구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 탁구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저희 작업실에 책상을 붙여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스포츠를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룰은 다 알아요. 팀 짜고 했는데 서브가 안 맞아요. 이게 공이 안 맞아. 바보가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룰은 다 아는데 이걸 누가 해야 돼? 누가 서브를 해야 돼?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로 다)하는 거지. 엄마는 공도 못 맞히면서. 그러면서 확실히 보는 것과 내가 탁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걸 안 거죠.

물론 내가 칠 줄 모른다는 건 알았지만, 그 칠 줄 모른다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공이 안 맞는데 라켓이 요만하잖아요.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이 감각이 나한테 없는 거죠. 이거 되게 골 때리네? 하면서 우리 조만간 탁구대 살 것 같아요. 당연히 탁구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이 새롭고 낯선 것들이 저 혼자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욕구나 그 사람의 관심사를 또 따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 육체의 저질을. 제가 아프고 나서 몸에 대한 각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디가 아파? 아, 어깨 왼쪽이 완전히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픔으로 인해서 어깨가 여기에 붙어있는 애가 어깨지?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문화는 이것과 무관하고 저 근사한 미술관 주변 언저리에 있다거나 핫한 어떤 것에 있다거나 힙한 어떤 것에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라는 걸 계속 우리가 자기 질문으로 생각해볼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겪은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그게 기획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이어, “안다”와 아는 것을 감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와, 문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는 왜 문화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까? 개인의 사소하고도 새로운 감각들이 모여 삶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삶과 나의 서사에 대한 감각은 표현을 통해 전이된다. 이러한 과정은 삶의 주관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도록 이끌어낸다.

유는 그래서 기획이란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멀어질수록 내 삶에서 사고나 서사나 내 언어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앞부분에 자기 이야기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문화나 예술 안에 언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마 같은 맥락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특별한 게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것만 따로 말씀드리고 쪽 진행해볼게요. 혹시 별나씨는 화이트보드에 어떤 걸 쓰셨어요?

임재춘 : 허우적거리다? 허우적거리다는 거는 왜요?

별나씨 : 아까 저의 정신세계 속에서 헤엄치는 게 즐겁다,고 처음에 썼다가 헤엄치는 것보다 허우적거리는 게 더 좋아서. 뭔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헤엄치는 게 아니라 저런 느낌이 좋아서.

#나영 #나다음

나영 : 저는 아이들 자화상이라는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도 아직 자기가 잘 해야 된다는 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은 제가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낙서처럼 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요. 두려움이 쌓인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표현하고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공방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임재춘 : 그게 뭘까요? 뭐 때문에?

나영 : 저도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여기 반 정도를 나눠서 표현한 건 뭐냐면 저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머릿속에서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저답게 살고 싶어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당장 웃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 표현했고,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에너지들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 에너지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에 되게 소질이 있는 게 고맙더라고요. 남들에게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해요. 정작 저는..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좋은수다]에 와서 글쓰기 수업을 통해 처음 글로 저를 표현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뭔가가 있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서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어서.

저는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사업 3년차에 [참좋은수다]에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가서 '이게 뭐지?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 나는 이제까지 남한테 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좋은수다]에서 많이 채운 것 같아요. 많이 채우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같이 이 좋은 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업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4년차에도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전에 주기확자 쌤이랑 저희 기획자 선생님이 '놀면서 지구 지켜볼래?'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면서 지구를 지키면 정말 재밌겠다.. 나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아까 전시부터 교육부터 지금 [지구인의 놀이터]라는 제로웨이스트 샵까지 무턱대고 하고 있어요. 아직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에 오픈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 아까 선생님이 쓸모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든 생각해봤고. 우리도 변화해야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되게 조금 ... 저 사실은 목이 메이는 것도 있어요.

임재춘 :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하는 거, 우리가 문화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누구나 일부러 실수와 좌절을 할 필요는 없죠. 그치만 살면서 실패나 좌절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사실은 알지만, 사회의 삶의 다양한 대부분은 사실은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핸디캡이 되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제일 잘 하는거죠.

깔마 : 아까 책 이야기했었잖아요. 『쌤과 데이브가 땅을 봤어요』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이 뭐냐면 쌤하고 데이브가 이제 땅을 파 가지고 보물찾기랑 계속 땅을 파는데,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계속 저쪽으로 가고 계속계속 그 다이아몬드만 피하면서..

임재춘 :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깔마 : 아니요, 모르고. 아 여기가 아닌가보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 과자만 먹고 한숨 잘 까? 하고 한숨 잤는데 그 다음에 딱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본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아까 책 얘기 할 때도 잠깐 (생각)났었는데 지금 나영쌤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책을 작년에 굉장히 우울할 때 읽고 그래, 뭐 인생이 별거나 나도 맨날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피하면서 살면서. 그랬는데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첫 장면에 있는 집하고 마지막에 있는 집하고 좀 달라요. 그게 저한테 엄청 감동이었어요. 저는 실은 애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책을 애들이 알더라구요. 같이 다니는 강아지가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고 알려줘도 애네는 몰라. 근데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강아지가 아까 그 뼈다귀를 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애들이 저한테 얘기해줬는데... 그냥 되게 좋네요.

별나씨 : 저도 이 책이 좋아가지고 제가 저희 언니 생일 때 초대 받아서 저 책을 들고 갔거든요. 다 같이 얘기 해보고 싶어서? 책을 읽고 저희 언니랑 형부랑 조카랑 꺼서 밥을 먹는데 저희 큰조카가 되게 욕심이 많거든요. 이걸 보고 역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형부는 한 가지 일을 되게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퇴임하셨는데. 그래서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애들은 여기 파고 저기 파니까... (조금만 계속 파어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저도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진짜로 찾아야 되는 보물이 뭘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기 묻혀있는 다이아몬드가 보물처럼 보이지만 애네는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파고파고.. 마지막에도 '너무 멋진 하루였어' 하거든요. 파는 거 자체가 좋아서. 진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물이 뭘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재춘 : 문화예술은 교과서가 없잖아요. 굳이 이야기하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내 교과서일텐데, 그건 명시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늘 변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생활문화플랫폼 안에서 활짝학교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똑같이 삶의 서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마주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호환되느냐에 따라서 언어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증언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내 삶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 뭘지? 그게 문화기획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근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경험력으로 보면 그런 기획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획이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기획인 경우, 그것들은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그런 작가들, 그런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예술가의 거창함, 미디어 아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문화, 삶의 문화, 사람들의 삶의 언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를 예술이 탐색하는 작업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잘하는 작가들을 많이 찾는 게 지금 예술의 추세이기도 해요.

사실 조금 더 오래되기도 했죠. 유럽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있었고 몇 년 전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에서도 '배움의 정원'이라는 주제가 핵심이었어요. 굉장히 핫한 국제적인 프로젝트 행사 중에 하나로 독일의 카셀에서도요. 최근 몇 년 간 사실은 이런 서사라는 게 핵심에 있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예술에 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다고 고백한 나영은,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SNS에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이야기에, 강사님은 이어 코멘트했다. 우리는 수행평가, 곧 수행이 평가받는 시기를 지나오며 없어도 있는 척, 있는데도 없는 척하곤 한다며, 그렇지만 예술은 '무턱대고 하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리고 예술 전공자와 예술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작점이라고.

한 관심 자체도 서사, 삶의 언어, 생생함,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들을 어떻게 예민하게 일깨울 거냐, 그리고 그 우리가 느낀 감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정의되게 만들 것이냐죠. 그런데 자기 언어, 자기만의 서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런 작업을 1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게 많다.

#갈마, 운동화, 이상함, 처음, 변신,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지 않는 게 없고

갈마 : 아 저 글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글을 안 쓰려고 작정했어요. 이때까지 쪽 살아왔던 거 얘기 안하고 가장 현재 그때 편견과 낯설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나도 굉장히 안 어울리게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첫 번째는 이미지는 제가 그린 거예요. 가장 최근에 지난 주에 여행.. 저거 나름대로 저희 키투어링 드로잉이라고 손떼지 않고 계속 그리는 그림인데. 한 손으로 하는 건데.



주디 : 손 떼지 않고 그렸어요? 한 번에?

갈마 : 거의 한번에요.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제가 53년 만에 혼자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잖아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다가 사실 제가 굉장히 I(내향적사람)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술을 마시는데 누군가 나를 보는 것이 너무 신경쓰여서 감히 생각도 못했다가 그런 계획 없이 마지막 날에 그냥 국밥 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모주가 맛있다는 얘기를 하도 해서 마셨어요. 처음엔 너무 떨어져서 숟가락으로 떠먹었잖아요. 뜨겁기도 했지만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제가 무언가 한 것 같은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형태를 바꾸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월이 지나간 시기에 내년 2월 3월부터는 새로운 걸 할 거 같은데. 약간의 그것의 답을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행을 갔거든요. 우리가 흔히 답사같은 걸 가면 관계자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않고, 정말 공간을 제가 딱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만 정해놓고 정처없이 다녔어요. 철저하게 몸으로.

참 좋았던 여행인데 그냥 저녁에 호텔에 나지막하게 있는 제 신발을 보니까 여행을 많이 봐서 들어서 여행이 아니다. 그냥 내 몸이 여행이다. 그래서 신발이 여행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저희 생활문화 플랫폼에서 매일매일 드로잉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 수업 때문인지 이번에 여행가서는 이런 게 감각이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설명으로 되지 않는 이게 감각이구나. 내가 이것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른쪽 그림은 제가 애들이랑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직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애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애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 전에 프로그램이나 도서관에서 만났던 아이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어릴 때와 다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안들고. 그래서 저는 요즘 엄청 무서운 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도와주는 게 뭔지 좀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도와주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머릿속에 도와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인생은 다 알아서 하는 거.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 그림은 제가 23명의 아이들과 책을 만들고 있는 책의 출판본이에요. 저 친구가 자기는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현상수배를 그린건데. 저 아이는 매일 저한테 혼나거든요 오늘도 저한테 혼났고. 그런데 저 그림에 아이들과 너무 잘 노는 죄라고 적었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내가 도와준 게 그런 거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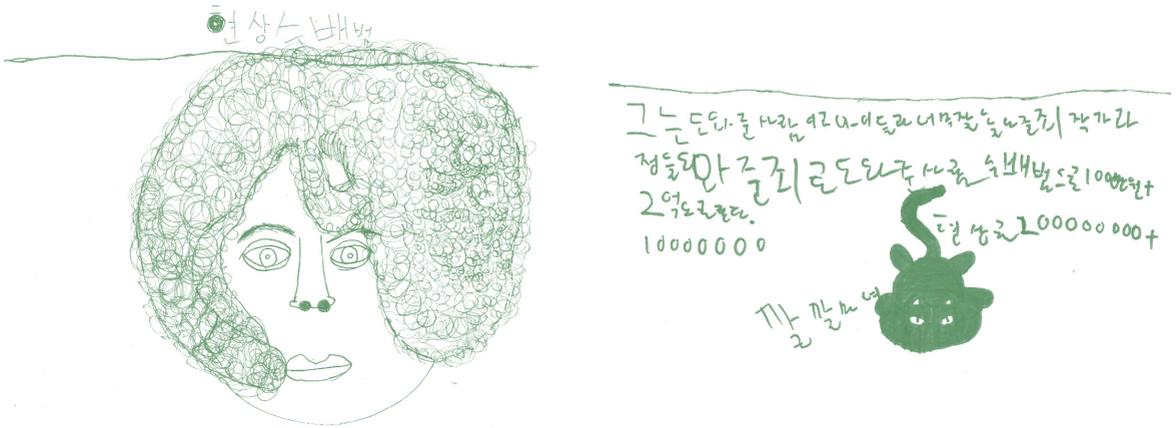
깔마 : 제가 애들과 관련된 그림을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까칠하고 어떨 땐 굉장히 비관적이고 저는 고민을 엄청 많이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랑 오래 있다 보니까 명랑하다는 게 뭔지,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게 뭔지, 그 다음 문장은 슬픔의 계곡에 도달했을 땐 날개를 활짝 펴라는 그 말이 뭔지를 알게된 것 같아요. 머릿속의 문장이 아니라. 아까 저와 싸우고 저한테 혼나고 저한테 울고 하는 아이들, 어휴 옆차기 해서 날라서 아직도 제 허벅지에 멍이 있잖아요. 애들은 굉장하거든요. 그런 아이들하고 있어서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명랑해야 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나영 : 고양이도 두 번이나 출현한 이유가 있어요?

깔마 : 제가 좀 애들 수준이라서. 좋아하는 걸 애들한테 엄청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검정색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래요.



깔마는 처음으로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셔봤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혼자 간 여행에서, 나의 감각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곳저곳을 다녀서 여행이 아닌, 내 몸이 곧 여행이라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여행이라는 키워드에, 강사님은 프랑스의 도시연구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에서 도시연구를 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소위 '이상한 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해당 지역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접근법 들을 시도한다고.



임재춘 : 혹시 아까 나영도 건너뛰긴 했는데 나영과 깔마는 혹시 여기에서 각자 뭐 쓰셨었어요?

나영 : 저는 nada움을 썼거든요. 저의 nada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서.

임재춘 :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nada움은 흔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나영의 말을 듣고 저 말을 보다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nada움이란 게 참 어렵지. 깔마는 뭐 썼어요?

깔마 : 저기 나와있는 운동화와 여행.

임재춘 : 저도 요새는 구두를 안 신거든요. 확실히 구두를 신었을 때의 걸음걸이와 운동화를 신었을 때의 걸음걸이가 다르지 않나요? 여행 부럽다. 나도 여행가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은유 작가 글도 소개해드렸지만, 조금 새로운 것을 통해 nada움에 다다른 게 있죠. nada움이란 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도 저를 알아가는데 자꾸 자기를 어느 상태에 봐야 되고 그게 낯설이고 이상함이기도 하고. 그게 사람마다 기질이나 성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은유 작가처럼 성격도 A부터 Z레벨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누가 지정해줄 수 없다는 거야. 아까 문화예술이나 문화기획, 삶의 문화가 텍스트에 없는 것처럼. 뭐라고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기획 학교나 스킬을 가르쳐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낯설을 우리가 조금 시도해보는다고 하는 거. 이게 나는 얼마큼이나 시도할 수 있는, 1cm가 얼마큼인가 시도해보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에 놓아놓는 것.

사실은 지역연구에서도 보통 동네 문화연구 한다고 하면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을 보통 찾아가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했거든요. 안 찾아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동네에 대해서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 직관대로 동네를 다녀보는 거죠. 동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 예를 들면 거리, 골목, 화단, 텃밭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데를 그냥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월요일에도 평일 저녁에도 휴일에도 가보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다르거든요. 그 풍경이 다를 때마다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때 동네의 삶 동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본다, 안다, 알고 싶다고 할 때 내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형태에서 가는 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역연구를 할 때 쓰기도 하고.

‘거기서 낯설게 보기’라는 키워드의 도시연구가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전통적인 유럽의 건축문화양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건축에 대한 정책, 학문적 방법론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이런 나라 안에서도 학문적인 연구방법으로써 어슬렁거림이 있어요. 답을 정해놓지 않고 대체 내 눈에 뭐가 보이는가. 내가 어떤 에티튜드와 감수성이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내 세계관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세계관이 바로 자기 역량인 거죠. 도시연구를 하는 사람의 역량. 그러니까 대학이나 그 이상의 고등교육 과정에서 역량을 쌓는다는 것은 계속 자기를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는 지금 무슨 직업적으로 연구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삶을 어떻게 내가 해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겪는 건 내 의지만으로 안돼요. 그냥 깔마처럼 거기 한번 놔봐야 돼요. 무턱대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저도 탁구 대회도 몇 번 할 거고 당근도 탐색해볼 거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한 이상한 짓거리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 같은 거 열어버리면 어떨까요? 탁구치면서! 탁구를 치면서 내가 한 이상한 짓거리에 대해서 다음번 우리가 만날 때 이상한 포럼 하나 열어봐요.

내가 하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하면 이상한 짓이 될 수도 있죠. 혼자 술 먹는 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이상한 짓일 수 있죠.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면 확실히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포럼같은 것들을 다음에 만났을 때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바람 #17매 원고지 #우리말사랑 동아리 #전체인구의 0.1%의 여대생, 가부장, 마지막 조각 퍼즐 하나

바람 : 저는 저를 소개하는 키워드를 몇 개 잡았어요. 17매 원고지, 우리말사랑 동아리, 전체 인구의 0.1%의 여대생, 가부장, 그리고 마지막 조각 퍼즐 하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손이 하얗고 긴 남자 선생님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겠어요. 가슴이 떨렸



쥬 : 고등학교 축제 때, 제가 겁도 없이 원고지를 17 페이지를 썼어요. 그러다보니 제가 전교에서 유일해진 거죠. 17매 원고지를 썼다고. 근데 그게 저의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글을 써야 될 것 같은 족쇄에.

임재춘 : 아직까지 그 족쇄가 있는 거예요?

바람 : 하지도 않아요. 은유 작가가 이야기했잖아요. 글쓰는 것과 글쓰고 싶은 생각은 다른 거다. 그 다음 키워드는 우리말사랑 동아리인데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부산 친구가 우리 동아리에 들어가재. 제가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딱 봤더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회과학 써클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빠시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게 제 평생의 부채로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학생 때 그래서 2년 정도 미뤄지고, 친구 잃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때 써클에 갔더니 선배가 그러는거예요. ‘여대생이 전체 인구의 0.1%가 안되는 거 알지? 너네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사는 거야 평생을’. 그게 그렇게 평생을 꽃힐지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환원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지만 환원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든 삶이 아닌데, 가정폭력이라던가 기타 등등 많이 가질 수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까 끝없는 물음 끝에 제가 찾아낸 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정수 속에서 자라고 그 정수가 나한테 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를 알게 됐어

요. 그래서 지금도 예술계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어찌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아는 건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 키워드 퍼즐 한 조각은 모든 사람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내 부모들도 그랬고 나의 지인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서도 대체 무엇이 빠져서 행복하지 않은가? 물론 늘 툴루랄라 행복할 수 없지만. 그 조각이 뭘까? 그게 몇 년째 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삶의 열정을 갖게 하고, 감각이 살아 있고, 나를 낮설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 퍼즐 한 조각이 뭘까. 어찌면 생활문화라는 것 속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하며, 갈마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도를 해요. 그 시도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열정을 숨기고 살았지? 아니 이걸 어떻게 갖고 살지? 라는 걸 계속 느끼게 해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갈 ‘퍼즐 한 조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그것을 찾는다면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음에 괴로워하는 그 퍼즐 한 조각이 고민입니다.

임재춘 : 정말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 삶이. 제가 최근에 접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지금의 삶과 당시의 삶을 짧게 얘기 해주셨는데도, 강렬하게 위여버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책을 보거나 사건을 접한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네요.

어떤 일들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사건이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일까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해요.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누군가는 끝나고 스쳐지나갔지만 이 작은 일이 결국에는 그 개인이나 그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에 저는 지금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낮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양한 삶에 대한 양태들 같은 것.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건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태도인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특히 어른들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밀면서 옳네 그르네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전히 우리 부모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원래 일목요연하지 않은 건데 자꾸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동시에 들이밀면서 일목요연하게 요구해서 이 사람이 나쁜가? 그렇지 않나요?



바람은 자신의 삶을 설명하며, 자신의 가장 큰 동기를 소개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나를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퍼즐 한 조각을 찾기 위해 활짝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주디, 후회→행복, 살면서 잘한 일

주디 : 저는 내 인생 자체가 후회였어요. 후회가 너무 커서 36살에 결혼해서 60에 23살짜리 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결혼할 걸. 또 49살에 시작한 배드민턴. 물론 지금은 10년 넘어서 에이스가 되어서 공치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후회가 되고 그리고 또 55세에 시작한 모든 게 후회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생활문화디자인이 활동하면서 사는 게 내가 되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조금 길게 썼어요. 어쨌든 후회하면서 그거는. 그리고 켈 큰 후회 중 하나 제가 84kg으로 20년 살았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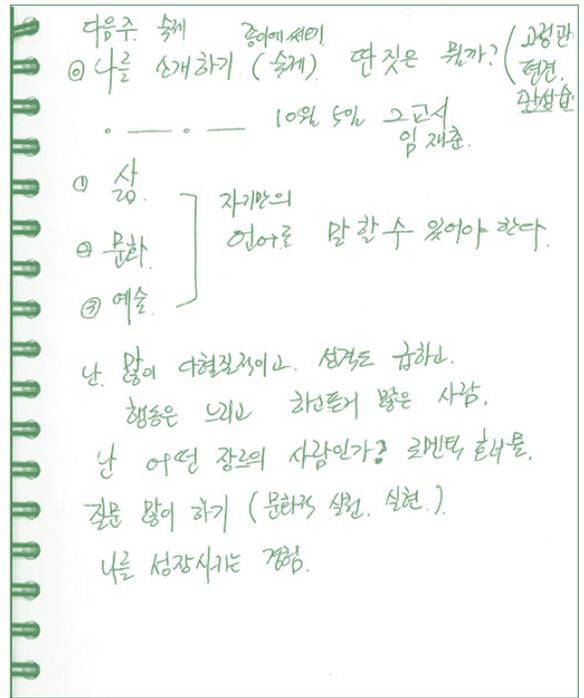
(사진을 가리키며) 저게 저예요, 84kg 증거사진이에요. 스모 선수처럼 팔뚝이 나오고, 앉으면 저 배가 내 가슴하고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서 얼굴은 되게 행복해보여요. 작년 이맘때까지.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사실 살면서 나는 이거 먹을 거야, 이러면서 나 사는데 부담없어 했는데. 당뇨에 걸리면서 살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당뇨 환자예요. 그리고 내가 당뇨환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많이 말해요. 그래야 나한테 술을 안 권하니까. 사실은 나는 말술을 먹는 여자예요. 맥주는 술이 아니야. 맥주는 그냥 애들이 콜라 먹듯이 먹는 거고 소맥을 한 5병을 먹어야 내가 좀 먹었구나 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후회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되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잘한 일은 우리 남편 만나서 결혼한 거. 딸 둘 낳은 거. 배드민턴 한 거.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자기는 나랑 결혼한 거 딸 둘 낳은 거 담배 끊은 거 자기가 살면서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꾸 제가 신랑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말 99에서 66으로 확 바뀌었죠. 정말 새 인생을 얻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옷을 안 사입었어요. 당근마켓에서 빅사이즈 큰 옷, 주로 5000원 짜리 옷만 사 입고.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작아져서 못 입는 옷들을 얻어 입어요. 난 지금 그냥 행복하고. 내가 활짝학교에서 큰 힘이 되진 않지만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 가면 나는 이 자리는 내가 지키다. 나는 내 몫을 내가 한다라고 해서 내 자리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후회 안 할 거예요. 당뇨 걸렸는데 살 빠졌으니까 다시 살 안 찌려고 노력하고. 계속 행복할 거고. 계속 살면서 잘한 일 세 가지 생각할 거고. 우리 여러분들 만난 것도 너무 행복해서 좋아요.

임재춘 :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어떻게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 게 다 저마다의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게 불을 지핀 계기들이 저마다 다르구나.

저는 이제 뭔가 제 안의 어떤 각성? 내가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 일 중 하나가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저한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많고, 제가 원래 술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술을 배우게 된 게 제가 운영했던 공간이 발효랩, 과정랩 그런 컨셉을 갖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술을 담글 줄 1도 몰랐죠. 발효도 모르고. 그래서 발효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럼 재밌겠네 흥미롭겠네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매주 금요일 4시에는 매주 술을 담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저 술을 담그면서 많이 봤어요. 그 이상함을 기록하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하고. 술이 빛는 동안에 술이 발효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마에서 비가 떨어지는 소리 같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과 밥과 누룩 이 세 가지를 그냥 두면 술이 되는 건데, 이 세 가지의 맛은 익숙한데 술이란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거든요. 굳이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완전 다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는 것을 만들어보면 알게 돼요. 그 놀라움이 생겨요. 왜 물과 누룩과 했는데 이런 썩듯한 맛이 나오지?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런 과정들을 3년간 따라가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에게 일종의 도전이기도 했는데, 아는 것을 익숙하게 하면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새로운 감수성을 경험하면 내가 익숙하게 보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해요.



조금씩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탄짓), 이상한 것, 아니면 은유 작가 말처럼 비트는 것도 좋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자기를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탁구도 그렇고. 스마트폰 같은 걸 귀찮아해서요. 사실 그래서 당근마켓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 그것에 환호하는가라고 하는 궁금함 때문에 시작한 거죠. 정보를 화면을 통해서 얻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캐릭터와는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낯섬의 1cm가 과연 얼마 만큼일까?

‘내가 하지 않을 것들을 해보고, 나의 이상한 짓거리들에 대해 떠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각과 감각을 통해, 새롭게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았으면 해요. 명시적 지식을 이겨내고,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수업이 마무리된 뒤, 우리는 각자의 소감을 나누었다.

‘진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기 서사를 꺼내고, 그를 통해 내가 이해되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음악과 바람이 된다면 그것이 곧 “생활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탄짓을 위해 엉덩이부터 떼고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섭취하고 있던 지식과 미디어 매체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나의 엉뚱함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듣고 있던 강사님은 ‘탄짓 간증 포럼’을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었다.

다른 거죠. 사람들이 이걸 왜 하지? 뭐 때문이지? 이런 호기심과 내가 필요한 부분이 점점이 생기니까 한 번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점점이 실제로 필요한 그걸 해야하는 구체적인 동기가 없으면 막연한 궁금함만으로 실천이 안돼요. 자기 삶의 어떤 소소하거나 거창한 감각들이 있어야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질문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발현돼요.

추상성을 극복해야 돼요. 머리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요. 자기 삶의 어떤 도움 내지는 나아감을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고 희망한다고 하면, 지금 요구되는 것은 책이나 앉아서 공부하고 정답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예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결핍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얻은 명시적 지식, 예를 들면 책이라던가 이런 게 한 축이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가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떼고 내가 직접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을 생활문화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부스팅 할 수 있는 딴 짓. 이상한 짓. 해보지 않은 것. 조금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경험상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자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재춘

문화재단을 들락날락하다, 문화현장 비평, 문화기획에 관한 대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제언 등을 업으로, 삶으로 삼아 살고 있다. 6년간 생활적정랩 빼꼼(becomingLab)을 운영했다. 발효가 가진 인문, 문화적 사유와 실천의 의미들을 실험, 탐구하는 문화기획자들의 매개공간으로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중이다. 독립적으로, 늙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04 제, 땅, 말 생활에 밀줄 긋기

생활문화활동가학교

활짝학교





시작 전, 강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운을 뗐다.

'소위 시적 긴장, 예술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활시위를 당길 때의 팽팽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긴장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장이 많은 삶은 '재미'의 상실을 초래하죠. 소설가이자 시인인 로렌스는 서양인으로서 새로운 후천 개벽가로, 그는 전근대적인 야생성을 끌어내려 노력했어요. 그는 <재미를 위한 혁명회>를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왜 우리의 언어는 상투적인가?' 무릇 글이란 제목 싸움이다 보니, 고영직 강사님은 평론가로서 글을 쓸 때마다 상투적임과 싸우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PPT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제 땅 말의 중요성'

"우리는 지역의 고유한 언어를 사투리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 땅의 말이라는 뜻으로 '제땅말'이라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긍지와 애정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언어는 환기의 기능이 있죠. 저는 우리의 언어가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활에 밀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은 이와 관련한 자신의 신조어를 몇 가지 소개했다. '낮은 이론가'를 차용하여 삶과 일터를 성찰하며 지식의 공공성을 강조한 단어 '동네 지식인'. 신중년 세대에 대한 경멸하는 명칭인 '꼰대'를 새로운 세대로의 지지와 지원을 강조한 단어 '꽃대' 등, 언어가 지닌 환기성이 잘 강조되는 예시였다.

그에 따르면, 정치철학자 김만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강사님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현재 사회 속에서 고립된 개개인은 타자 및 공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존재로 변모하고 만다'고. 그는 질문했다. 우리는 이러한 훼손을 방지할 것인가? 또한 코로나를 통해 재단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지니게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재미의 혁명을 통해 지역의 토양을 바꿀 방법은 무엇인가?

어느 때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있어야 하는 이 시기에, 강사님은 생활문화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활동들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목적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삶의 방식 변화'는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야생성을 살리는 무형식의 배움'으로, 강사님은 그 예시가 되는 한 가지의 시를 읽어줬다. 살아있는 '송아지'를 처음 본 아이가 쓴 동시였다.

송아지의 눈은 크고 맑고 슬프다

그런데, 소고깃국은 맛있다

난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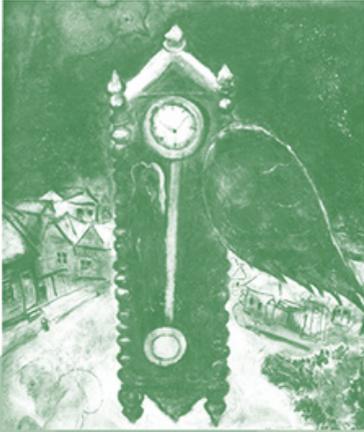
“이 시는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을 보세요. ‘어떡하지?’ 아이의 안에 고기와 송아지의 연계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화되어있는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를 보고 느끼게 된 것이 질문으로 잘 드러나죠. 아이는 아마 앞으로도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해하겠죠.”

동시에 그는 기존의 생활문화 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의 상투성에 대해 지적했다. 남용되는 문화예술 키트와 차시 중심의 활동 들이 그 예시였다. 해당 활동들 내의 질문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차시와 진도 위주의 수업, 그리고 단순 체험에서 나아가 유의미한 경험으로의 진화를 위해 우연성의 가치를 살려 무형식의 배움을 진행하자는 그의 이야기에, 현장 참가자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그것을 과연 현장의 문제로 치부해도 되느냐는 의견. 강사님 역시 해당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 이러한 탐구와 공부는 사실 현장의 스킬을 드라마틱하게 향상하

문화기획자가 된다는 것: '꼰대' 말고 '꽃대'



자기 서사(敍事)에 눈을 뜬 사람을 이길 재간은 어디에도 없다. (중략) 살던 대로 살려는 관성적인 삶에서는 자기 서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라떼는 말이야' 식의 너무나 뻔한 상투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언젠가 '꼰대 말고 꽃대'라는 글을 쓴 것도 자기 인생을 조금은 다르게 살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하자는 것이었다. '꽃'은 젊은 세대의 몫이고, 50+ 신중년 및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인 꽃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꽃대'가 되자는 것이다. 괜찮지 않은가? 꼰대와 꽃대는 한 꽃 차이지만, 사는 모습은 천지 차이일 것이다. 나는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_고영직, <늙어가는 삶, 익어가는 삶>(경향신문, 2021.7.8)

돌봄민주주의를 위한 '동네지식인'들의 커넥터 역할



우리는 상호취약성과 상호연결성을 생각하며 '상호의존의 정치학'을 구현해야 한다. 영국 '돌봄집단'이 쓴 『돌봄 선언』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3장 '돌보는 공동체' 편이다. 이들은 돌보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특성, 즉 상호지원, 공공 공간, 공유자원, 지역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꼽는다. "돌봄과 복지활동의 민영화는 수반하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의 확대와 '인소싱'을 통해 공공부분을 개혁해야 한다"(91쪽)고 주장한다.

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공부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상투적이고 관성적인 교육과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죠.’

강사님은 공부와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작가와 그들의 주된 정서를 설명하였다. 녹색의 감수성을 위한 새로운 언어들(삼보일배, 생명 평화 등)을 제시하며 이후 환경단체 [풀꽃세상]을 통해 돌맹이, 골목길 등 비인간적 존재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환기한 최성각 작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인 ‘세계감’을 일깨우며 시의 마음을 되찾는 삶을 증시한 이문재 작가, 흙 Hummus에서 멀어지면서 겸손Humility과 떨어진 삶을 지적하며 공생공락의 삶을 위한 ‘겸손’의 마음을 강조한 김종철 작가까지.

이는 결국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어졌다. 뉴노멀 시대에는 드디어 나와 타인이 나란히 설 수 있는 ‘문화적 돌봄’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영국의 돌봄 집단 care collective가 쓴 『돌봄 선언』의 일부와 춘천문화재단의 사업인 <도시가쌀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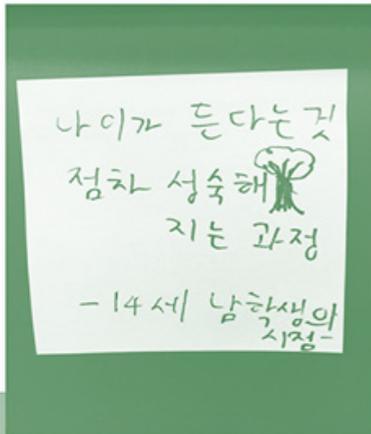
“돌봄 선언에서는 상호의존을 통해 삶터에서의 민주주의의 작동을 목표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해당 책에서는 네 가지의 핵심 특성을 중요히 꼽는데요. 상호지원, 공공공간, 공유자원, 지역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중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담기지 않는 느낌 아닐까요.

일전에 춘천 문화재단에서 <도시가쌀롱> 프로그램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내의 사적 영업공간을 공모하여, 시민들과의 취향공유 및 취미 공유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어요. 클래식만을 틀어 놓던 카페 주인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트로트나 팝송 같은 다양한 취향 역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보았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 도시의 리듬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은 생각은 크게, 그러나 실천은 작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커다란 것들에 시선이 갇히면 작은 행동들을 해나갈 수 없다는 의미의 이야기였다. 또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하여, 그 범주에만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 역시 덧붙였다.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 이는 강사님이 초반에 '계땅말', '꽃대'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제시해 시선을 환기한 것과 동일한 맥락 같았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지역기획자들은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을지, 이에 고영직 선생님은 앞테의 법칙을 활용한 열 한가지 법칙을 화면에 띄웠다.

북유럽의 '안테의 법칙'과 지역 기획자의 태도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2. 당신이 남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3.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4.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5.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6.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7. 당신이 모든 것에 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8. 남들을 비웃지 말라
9.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10.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11.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 한가지 항목이 뜨자마자 탄성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인 수업이었기에, 한 번은 생각해보았거나 크게 공감되는 법칙이었기 때문이었다.

참가자들은 저 열 가지 법칙 중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지, 또한 어떤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싶은지를 나눴다. 절반 이상은 열한 번째 항목인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를 꼽았다. 그 부분에 대해 처음 생각해본다는 반응과 어딘가 속내를 들킨 것 같아 섬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리드하는 활동가 특성상, 리드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마다 되새길 수 있을 법한 문구였다. 또 혹자는 아홉 번째인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를 말하기도 했다.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추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마다 용기를 주는 말이라는 의견이었다.

강사님 또한 이처럼, 해당 법칙이 참여자들의 마음에 남기를 바란 듯했다. 그는 다음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인 성북구의 '공탁' 사례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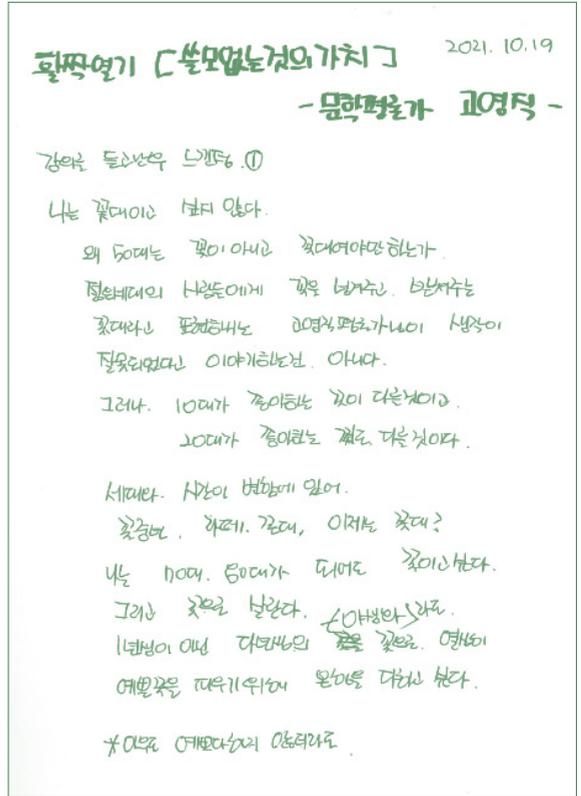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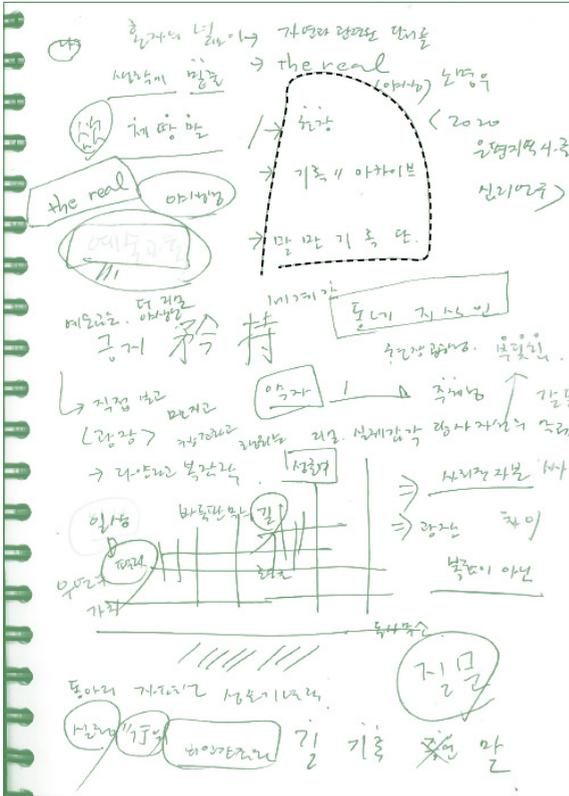
“'공탁'이란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줄임말인데요, 2020년에는 300명의 활동가를 지니고 있는 문화 협치 커뮤니티예요. 지역 내의 이웃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개방적인 공론장을 만들자, 에서 시작해서 개방과 환대 그리고 자율의 기준을 가지고 여태 진행되어왔죠.”

당신에겐 어떤 문장이 있는가?

#한가해지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실례이다

주디 : 저도 오늘로 만짓이 벌써 4주차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한가해지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실례이다.'예요. 이 글을 누가 캘리그래피로 쓴 걸 봤는데, 한가해지면 해야지~하니까 절대 한가해질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정말 좋아하는 일에 대한 실례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크게 하고 시시한 거, 옆에 사람 끌어들었어요. 어젯밤에 아는 선생님이 악세사리를 만든다 하셔서, 저도 반지를 만들어왔어요.





#나는 솔직함에 미쳐가고 있다

대장 : 요즘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하게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듣는 사람, 가족은 불편할지는 몰라도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감춰줘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할 때 '나는 나팔수야. 왜? 난 이제 감추지 않아. 니가 얘기하면 바로 얘기할 거야. 나한테 너의 고민을 나한테 얘기 하지 마' 라고 하고 다녀요.

그동안은 비밀을 지켜줬는데, 계속 그게 힘들었거든요. 자꾸 들어주니까 그게 너무나 나를 꺾어먹는 일을 하더라고요. '비밀을 지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친구 사이가 아니라 집에서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이러거든요. 그걸 핑계를 경춘기로 해요. '더 이상 엄마가 참을 수가 없어, 폭발이 있다'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고, 요즘이 너무 좋아요. 옛날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고들 하는데. 지금이 거침없으니, 요즘이 너무 좋아요. 미쳐도 좋고.

바람 : 삶의 전환을 하는 시기에 혼자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쓰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

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생각을 해보니, 내가 삶이 전환되어야 되는 시기에 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일기를 쓰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게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려고 있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잣대성이란 말 있잖아요. 폐쇄적인 내 삶의 잣대성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관계를 맺고 내려놓고 내 방식으로 풀어내는 어떤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 퍼즐의 한 조각을 조금씩 구체화시켜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말이어도, 정말 맛있구나 너무너무 맛있구나 진짜 맛있구나!

토리 : 저는 리액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쁨의 리액션, 슬픔의 리액션 이런 거요. 내가 메마른 사람이었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뛰어나와서 경험하니, 뭔가가 맛있을 때 ‘어머~ 너무 맛있어’ 이런 게 아니라 ‘맛있네, 잘 먹었어요.’ 라고 끝내면 상대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리액션을 배우는 중이에요. 리액션에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감정을 담아서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좋아하는구나. 같은 말이어도 정말 맛있구나 너무너무 맛있구나 진짜 맛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나는 맛있다는 한 마디에 표현이 다 끝났고 정말 맛있게 먹어서 맛있다고 한 건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 좀 부족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리액션을 충분히 해주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끔 익숙해지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있는 말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좋은 말로 듣고 싶은 대로, 또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잘 들어주고 이제는 반응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돌봄이라는 말 대신 다른 언어가 없을까

깔마 : 저는 아까 ‘제땅말’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말만 기획단> 아카이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제가 있었던 곳에, 작년 연말에 제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인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아?’했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다들 멘붕에 빠졌죠. 엄마 같은 그 어떤 양육, 돌봄이 강조되고 그거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나 아닌 거 같아. 형식적인 돌봄 감정노동 싫어’. 그래서 아까 돌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놓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세대들은 다른데, 오늘 나왔던 언어들도 어쩌면 다음 세대들한테는 차갑게 읽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또 고개 끄덕거리면서 듣는 그 얘기들이, 20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려 하고 틀에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점 중 하나예요.

민병은 : 우리의 언어가 좀 오염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돌봄이 여성, 잉여노동으로 연결되는 언어로. 저는 인간에 대한 존중, 리액션도 중요하고 적당한 거리감도 중요한데 그 바탕에 인간에 대한 존중을 깔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도 결국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존경과 존중은 다르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배우고 싶은 상대에게서 바라왔던 것이 어느 날 아닌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심지어 버려버리죠. 존경은 일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존중은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거죠.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리액션도 그렇고 거리두기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되는 것들이)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도 힘을 받는다

지구인S :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고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작가의 무게감이랄까. 그런데 저번 주에 숙제를 하면서 쑥 하니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강렬했어요.

저는 스스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듣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 뿐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의 포지션은 내가 말을 못해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것에 대해 옛날에는 나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을까? 했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낮은 지식인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가 나쁜 게 아니구나. 고급 언어를 쓰고 뭐를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쓰는 언어나 낮은 지식들이 내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했던 활동 중에서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민병은 : 명랑한 은둔자. 수필인데 사실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글을 보면 (작가가 기자거든요) 꽤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글이 너무 평범한데 너무 잘 읽혀. 왜 나는 글을 이렇게 못쓰지? 우리는 글에 대한 압박감, 하도 견고함, 원고지에 대한 억눌림이 학습되어져 강박이 있어요. 미리 검열하죠. 나 잘 쓴 거야? 글을 고치다 고치다 보면 글이 밋밋해지고 김빠진 글이 되고. 명랑한 은둔자는 이 사람이 알콜 중독자에서 벗어난 과정을 쓴 글이에요. 이 글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은 자기의 언어. 다른 사람의 언어를 빌어서 쓴 게 아니고 내 경험에서 온 내 언어로 썼기 때문일거예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쉽게 읽히는 거 아닐까 해요.

나를 알게 하고 싶고, 당신을 알고 싶고, 우리가 안 걸 하고 싶어요

나영 : 저도 조금 여기 선생님들처럼 오래도록 평가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는 조금 내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줄을 썼어요. 나를 알게 하고 싶고, 당신을 알고 싶고, 우리가 안 걸 하고 싶어요.

민병은 : 우리의 일상은 사실 지루하잖아요. 그 안에서 기갈나는 일은 없어요. 전환은 혁명적으로 오지 않아요. 삶 속의 작고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서서히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삶에서 상실이 확 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내 생활, 실천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름다운, 상호 의존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다. 의존하는 법. 서로를 포기하고 마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거절도 배워야 하고, 그런 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고영직

문학평론가. 웹진 [아르떼365] 편집위원.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춘천 문화재단 [POT] 편집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인문적 인간』을 비롯해 『자치와 상상력』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공저), 『생애. 전환. 학교』(공저) 등을 펴냈다.

05

사람과 장소, 그리고 기획을 만나다 생활문화공간탐방기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 나영(이나영)

서툰 운전이 초행길을 헤매다가 좀 늦게 도착한 [우당탕탕]의 건물 앞에는 대표님인 덩더쿵 쌤이 마중 나오셨다. 생활문화 플랫폼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우당탕탕]의 그녀가 궁금했던 터라 이곳의 방문은 설렘이었다. 서점으로 들어서니 책 향기가 낯설지만 좋았고,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나 과장이 없는 게 끌림이 되었다.

[우당탕탕]의 스토리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만큼 내 마음도 반짝이게 만들었고, 실적 위주의 기획자가 아닌 함께 즐거운 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란 게 느껴져 나도 잠시 그 세계에 빠져 상상의 시간을 즐겼다.

그녀의 기획들은 우리의 일상과 가까웠고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특히 은밀한 글쓰기 기획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글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게 신선했다.

설명이 끝나고 다과를 나누며 각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은, 주체가 달랐을 때 변화하는 기획들을 들으면서 타인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북부 청년 팀의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문화활동의 필요성에 공감되었으며 변화가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 슬쩍 내미신 봉투에는 그림책과 에코백 텀블러, 우당탕탕 기록 책 3권이 있었다. 그림책이 다 달랐는데 각 그림책에 작가의 의도와 부연설명을 들으며 하나하나 준비하신 마음이 감동이 었다.

꾸미지 않은 그녀

사람의 즐거움을 상상하는 그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그녀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글을 통해 그때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우당탕탕] 덩더쿵 쌤께 보낸다.

그림책 NORI,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39번길 1
동네책방 그림책NORi와 함께 하는 우당탕탕예술놀이단은 기획자와 참여자, 작가와 독자, 어른과 아이 등 그 사이에 놓인 경계에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놀공리에 빠져있는 놀쟁이들의 놀이터.

이지은

동네 책방인 그림책NORI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안에 쌓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과 우당탕탕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당탕탕예술놀이단을 결성하였다. 재기발랄하고 진솔한 기획을 바탕으로 12년 째 단체와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참좋은수다 | 대장(김혜영)

참 : 참하고 생각이 맑은

좋은 : 좋은 성품을 지닌 엄마들이

은 : 은근한 매력과 열정으로

수 :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내고

다 : 다 수행해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참좋은수다]를 방문하고 난 후 난 또 다른 도전을 맞이했다. [참좋은수다] 구성원들은 기획자로서 자질과 열정이 넘쳤고 구성원들이 잘 짜여진 퍼즐처럼 각자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반했다. 새로운 구상과 우리가 진행하는 <경춘기의 반란>을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고민에서 조금은 답을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1. 엄마들이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시작된 요리
2. 플리마켓을 통한 전문성
3. 각자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어가는 기획력

[참좋은수다]는 우리가 배워가고 싶은 참 좋은 롤모델이다. 생활문화플랫폼을 제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다, 우리 <경춘네트워크>도 이제 제대로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부릉부릉~~

**** 참여자 질문과 답변 ****

Q. [참좋은수다]는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요?

A.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며 홍보하기
 일상을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활동
 어려운 이웃 돌아보는 활동
 나이에 머물지 않고 무언가 일하고 있을 듯

Q. 당신은 5년 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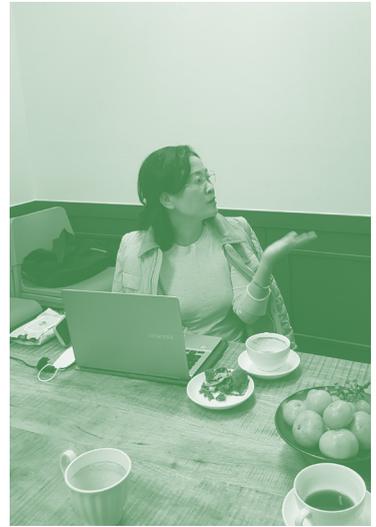
A.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재미를 찾는 할머니가 될 준비
 배운 걸 남 주고 있을 듯?
 함께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며 일상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할 것 같아요
 동지들과 봉사활동하며 함께 산 가서 쓰레기 줍고 도시락 먹기
 재미난 하루를 위해 멤버들과 계속 찾고 싶어요

Q. 다른 공동체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조언해 줄 것이 있다면?

A. 다수결 원칙 NO NO, 개성과 각자의 의견 존중
 글쓰기 수업 추천
 다양성의 조화를 인정
 자발적 참여, 오랜 관계
 자신만의 색깔, 팀워크

Q. 다른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하고 조언해 줄 것이 있다면?

A. 공평(성과, 임무)
 공동체성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속이나 독주는 피하면 좋겠어요



참좋은수다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0
 '일상을 문화로 놀다' 참좋은수다 협동조합은 일상문화 기획활동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놀이보고서'라는 기록으로 남기며 새로운 길에 도전해봅니다.

김민정

바자회 활동에서 시작된, 핸드메이드를 사랑하는 4-50대 경력단절 여성들의 협동조합 '참좋은수다'를 운영하고 있다. 찻잔 속 예쁜 찻잔 같았던 엄마들의 삶을 세상으로 꺼내며, 지역의 일상과 삶의 생활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플러스마이너스일도씨 | 낯선 골목길에서 친숙함과 마주하다, 지구인's(이수경)

낯선 이름의 동네에 도착했다. 내가 사는 곳과 조금은 다른 모습.

꼬불꼬불 공영주차장을 찾아 올라간 곳이 그러하였으며,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굴뚝이 있는 목욕탕도 그러하였고, 좁은 골목길이 그러하였다.

[협동조합 카페마을]에 도착해서 따뜻한 생강레몬차와 맛난 낙지볶음을 함께 나눠먹었다. 배가 부르니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들려주시는 다양한 동네 활동이야기들과 사진들은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머릿속이 즐거웠다.

많은 생각들이 오갈 때 쯤 동네 한 바퀴를 돌자고 하셨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 [플마] 주차장에서 만났던 길냥이는 친숙한 듯 동네할머니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다. 할머니는 고양이 이빨이 없어서 사료를 부드럽게 해서 줘야 한다고 하셨다. 이미 고양이 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신듯했다. 바로 옆에 있는 제로웨이스트가게에 가서 동네이야기도 듣고 쇼핑도 했다.

시장골목을 지나 아까 봤던 목욕탕에 도착했다. 목욕탕에서는 예술가들의 전시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셨다. 그



리고 들른 책방은 주인은 없었지만, 익숙한 듯 비변을 누르고 들어가셨다. 책방 주인과도 허물없이 지내시는 듯 했다. 이후 도자기 공방에 들러 함께 모의하고 작당한, 그리고 실현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동네 깊숙히 들고돌아 용왕산 근린공원에 오른다. 제법 높은 산에 올라가니 넓은 공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에서 <별 헤는 밤>이라는 축제가 열렸다고 했다. 사진에서 본 까만 밤 렌턴 불빛이 켜져 있는 텐트가 있었던, 인상 깊었던 사진이 떠올랐다. 대낮에 그곳에 섰지만 어떤 축제의 모습일지 상상이 갔다.

동네의 설명을 듣고 목2동, 모기동이라 부르는 이곳 동네를 내려다보니 거대한 조각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 곳곳에 다른 색을 뿜내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연결해주는 골목길이 있고, 그 골목길을 촘촘하게 실로 엮듯 누벼주는 모기동 활동가 들이 만들어내는 조각보. 사람들이 골목을 누비며 꾸준하게 공간을 만나고, 공간을 열고, 작당을 하며, 어깨너머 배우기도 한다. 365일 쉬지 않고 유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때로는 변주하듯이 빠르고 느리게를 반복해나간다. 크고 작은, 혹은 천천히 느리게, 달히고 열리는 반복 속에 알록달록 조각보는 완성되어간다. 그리고 그 조각보는 따스한 색상을 빛내며 모기동을 덮어주는 것 같다.

낯설게 느껴졌던 처음의 골목길이 동네 한바퀴를 돌아보니 처음과 다른 친숙함으로 다가온다.

나는 올해 경기문화재단의 <활짝학교>를 다니며 내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발표한 적이 있다.

거기에 나는 “우리 동네에서 놀기”라고 적었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는 이런 나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준 방문



이었던 것 같다. 높낮이 없고 넓고 평탄한 도로와 아파트가 많은 곳, 우리 동네. 그 안에서 내년에는 낮설게 다가가 친숙함이 배어나는,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상 속 생활예술과 활동을 놀듯이 채워보고 싶다.

2022년에는 우리 동네에서 모기동과는 다른 조각보를 만들어 봐야겠다. 공간과 공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가지각색의 색실로 엮어서 모기동과는 다른 빛의 조각보로 우리 동네를 도시 살이를 포근히 덮어봐야겠다. 그리고 모기동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동네 곳곳을 낮설게 소개해야겠다.

플러스마이너스일도씨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97
문화예술단체,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는 “도시에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넓히기 위한 활동을 디자인 하는 그룹입니다. 커뮤니티 문화가 형성되는 거점공간과 관계를 잇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역거점을 두고 사람을 잇고 또한 형성된 관계를 통해 대안적 삶의 방식과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유다원

양천구 목2동을 기반으로 플러스마이너스일도씨라는 문화예술단체를 함께 가꿔가고 있다. 삶과 맞닿아 있는 질문과 실천을 가치롭게 생각하며 별 것 아닌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풍경과 사건들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



동네형들 | 동네에서 만난 세계, 깔마(신지은)

4호선 이 쪽 끝에서 저 쪽 끝까지,

저 쪽 끝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산이 보이는 정류장에서 내렸다. 우리 동네와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했다. 나는 이 비슷하고 다르기도 한 동네의 [동네형들]을 방문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까? 관성과 습관을 벗어난 새로움, 신선함, 신박함? 이런 기대는 적당한 기대일까?

과하지도 무료하지도 않은 적당한 세계.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배달 앱이 올리는 식당 공간에서 [동네형들]의 몇 사람을 만났다. 젊은 형과 젊은 언니들이 시끌벅적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조용하고 소소했다. 한쪽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박도빈 대표는 담담하게 답사 객을 맞이했다. 선물, 체험, 과장된 환대 인사는 없었다. 짐작컨대 평소의 [동네형들]과 다를 바 없었으리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특별한 시작이 없었다. 파스타 맛에 관해서, 젊은 형과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이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에 관해서 말했다.

“이제는 결혼에 관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으시지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결혼식은요?” “왜 부모는 자신과 관계에서 자기 서사를 만드는 걸까요?” “자식, 지위, 부와 연결시키지 않고 나를 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로 다른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상의 대화는 문화에 관해서, 당사자성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격식을 차린 통과의례는 없었지만, 진지했고 흥미롭고 조화로운 시간이었다. ‘동네형들’이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의 이름과 닮아있었다. 과하지도 무료하지도 않은, 적당한 방문.

고양이는 이슈가 아니라 세계

[동네형들]의 사무실은 고양이의 집이다.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 검정과 얼룩무늬와 갈색, 무늬만 다른 게 아니라, 살아온 내력도 다 다른 고양이들이 사무실을 제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동네형들]의 사람들은 고양이와 함께 하는 데 스스로이 없었다. 곤궁에 처한 길 가의 고양이를 구출하고, 고양이 밥을 위한 모금을 하고, 연대를 시도하고 있었다. 동물권, 생명에 관한 도덕적 존중, 동물의 법적지위 등등 단어를 떠올리다 조금 부끄러웠다. 나는 고양이라는 존재를 두 가지 영역에서 가두고 있었다. 한 쪽은 내가 애호하는 반려동물의 하나로, 또 한 쪽은 거창한 구호로.

“이 동네도 그렇고 다른 동네도 그렇고, 길냥이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고양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실감해요.”

박도빈 대표의 말을 듣고 “땡땡”하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랬다. 고양이는 애호와 구호가 아닌 ‘세계’의 살아 있는 존재다. 길에서 나를 따라오던 길냥이를 떠올린다. 그들이 내 세계의 일부분이라면,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일 역시 생활이며, 고양이와 함께 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 아닌가. 그리하여 동네형들의 사무실에 사람이 아닌 고양이가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했다.

당사자성의 울타리, ALL GENDER의 세계

동네형들의 경험, 동네형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문화 기획에 관해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사자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되었고, 당사자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말을 했다. 고백컨대 나는 당사자성이라는 단어의 어떤 경향을 경계했다. 나는 무엇인가, 온전히 나라는 게 존재할까, 자신으로부터라는 구호가 지닌 무례함과 제멋대로 혹은 폭력성을 누르고 싶지 않았다. 이 대화의 시간에도 마찬가지로였다. 동네형들이 말하는 당사자성은 무엇이지, 저 분이 이야기하는 나는 무엇이지, 그리고 지금 내가 경계하면서, 잊지 않으려 하면서, 동시에 필요하다고 수긍하는 당사자성은 무엇이지, 긴장하면서 들었다. 아직도

모르겠다. 당사자성이 무엇인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의 축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어느 시간, 어느 공간, 누구를 만나든 당사자성에 관한 말은 복잡하고 서걱거리고 광대하다는 사실은 비슷하다. ‘말’은 어떤 울타리를 필요로 한다. 이 다르고 다른 당사자성의 울타리는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역시 모르겠다. 다만 이것도 그 울타리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동네형들]의 화장실은 성중립 화장실이다.

남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장실을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 되지 않는 젠더 의식을 화장실로 구현했다. 이 화장실은, “우리는 ALL GENDER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당사자성이 가능할

것인가, 그 열려 있음에는 반드시 안전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성중립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성중립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하게 열려 있는 플랫폼, 생활 문화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다.

‘답이 있군요’는 재미없다.

관념에서는 답이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답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동네형들] 방문도 그랬다. 신선하기도 했고 익숙하기도 했다. 새롭기도 했고 비슷하기도 했다. 신박함? 신박함은 확실히 있었다. 고양이 집이 된 사무실 풍경이 지금도 간혹 떠오른다.

○ 동네 형들 만나러 가고 오고 난후 ~
 춘천가고 얼마만에 가보는 서울 김인기
 그래서 조급 심적 나왔다.
 어니나 다른가 내비 안을 잠깐 놓쳐서
 길을 잘못 들었다.
 시간 아깝다고 차에서 빵을 먹으면서 갖다
 점심을 주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내 무능.
 2점에는 복화요 스파게티타 피자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많이 남아서 내가 포장해왔다.
 안 먹어본 치킨랩과 샌드wich는 주문했다.
 플레는 안가워서 모르지만.
 동네 형들 만나러 온 내 선택은 옳았다.
 두 세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끝은 시간이 아쉬웠다.
 아직은 난 배웁니까 해야 할 일이 많다.
 환짜 확고 입학해서 또 강릉을 받은 날이다.
 근데 벌써 졸업이냐니. ㅠ ㅠ 시간이 너무 빠르다.



[동네형들]을 찾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내년에는 '동네언니전'을 만들고 말거야 했었다.

그러다 성중립 화장실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조금 막혔다. 언니의 그 언니라는 단어가 다양성을 헤치지 않나, 고양이도 안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나 등등. 뭐 그러다 그냥 하기로 했다. 그냥 해야지. 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세계에서 동네언니들을 불러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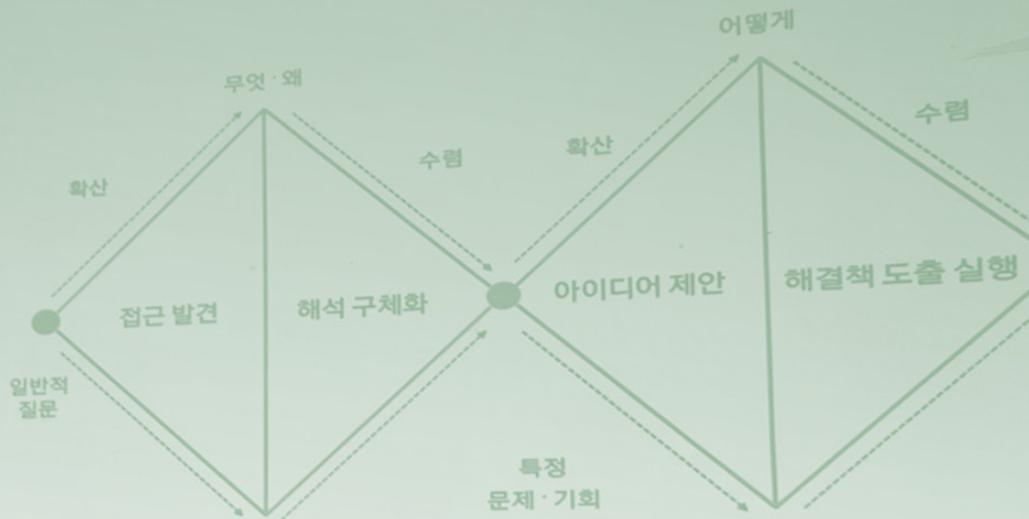
동네형들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획자, 예술가, 활동가들과 함께 문화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서울시 강북구를 중심으로 동네 청년들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과 자립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였습니다.

박도빈

20대에 미국, 프랑스, 인도에서 자원활동을 했고, 이후 국제교류, 환경, 청소년, 도서관 등 여러 분야의 비영리단체에서 일했다. 2012년 서울 강북구로 이사와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의 공동대표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 청년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다.

삼양동 로컬랩(Local Lab)



좋은 질문과 응답능력 | 이재경

이재경 : 저는 좋은 질문과 응답력, 그리고 전환과 자기질문이라는 이런 새로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전환이 도대체 뭐야? 영어로 보면 하나는 transition이래요. 하나는 transformation이래요. transition은 목표나 가치는 불변인데 방법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다른 길로 해보자. transformation은 목표와 가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transformation이 좋은 거고 transition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선생님들처럼 본인의 영역 또는 본인의 분야 본인의 동네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기반 되어 쌓이신 분들은 이제 와서 목적이나 가치나, 바뀌는 건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건 꼭 transformation은 아닐 수 있다. 거대한 전환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찌 보면 목표와 가치는 둔 상태로 새로운 방법들로 고민해보시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전환을 위해서 질문이 필요한 것 같다.

4살 된 아이는 하루에 100개에서 300개 되는 질문을 쏟아내대요. 근데 우리가 10대가 되면 이 질문이 몇 번 이하로 감소한다고 해요. 하루에 질문하는 양이. 그런데 그건 결국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떨어지나 봐요. 흔히 이제 우리가 질문을 안 던지면 이제는 뭔가 능숙해진 사람이잖아요. 크면 클수록 질문이 필요 없잖아. 우리가 호기심도 점차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놓고 보면 질문이 멈추는 건 성장과 노화의 갈림길일 수도 있겠다. 질문이 많다는 건 계속 성장하는 거고 질문이 끝났다는 건 이제 늙었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작이 '주장의 시대' 입니다.

오로지 주장만 하고 있어요 각자. 언젠가부터 일방적인 판단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지역연구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모든 주민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걸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려요. '아 그러면 만들어야지'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어머 이렇게 공간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 이걸 느끼게 돼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면 호기심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맞나?' 라는 호기심이. 그러면 호기심은 결국 묻고 관찰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조지 칼린'이 이런 말을 했대요. '뻔히 있는 걸 보면서 왜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또 있지도 않는 걸 꿈꾸며 왜 없지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일하러 가야하니 그땀 질문조차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 2번이었



지역연구자인 이재경 강사님은, '전환이란 변화를 일으키는 질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질문과 나이 들의 상관관계, 능숙해질수록 줄어드는 질문과 호기심은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다고. 그는 그렇기에 질문을 멈추는 것을 노화의 갈림길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으면 좋겠는데 저 일상을 살면서 대부분 3번이예요.

저는 질문을 할 때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게 한 가지는 있다고 봐요.

경청할 생각이 없다면 질문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경청은요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근데 경청은 온몸으로 다 들어야 경청이예요. 여기서 한자 聽(청)자를 풀어서 보면 귀, 눈,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聽(청)’자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질문도 없지만 경청도 없으면 안돼요. ‘답을 듣지 않으면서 질문은 왜 해’ 그 다음은 ‘대화는 피로하다’, 결국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회의적이라는 거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만 하면 안 된다 표정과 행동 맥락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강의 가보면 어떤 분들은 경청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정말 진짜 ‘전문가주의’와 ‘능력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답을 달래. 사람과 사람으로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해법, 솔루션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 가서 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거대한 데 가면 전문가가 있을지 몰라요. 핵, 남북관계, 국제무역 이런 건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우리 일상을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서울에 426개 동이

있거든요? 그 동네에는 모두 '주쓰'가 있대요. 뭘까요? '주차와 쓰레기'. 근데 서울 말고 어디를 가 봐도 다 주차와 쓰레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수십 년째 계속 문제인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문가를 찾으세요. 이렇게 '너무나 답을 원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할 건 반드시 '실천하기다'.

질문하기와 실천하기를 결합하면 변화가 생긴다. 근데 저는 사실 실천에 대해 집중해서, 질문하기를 방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천을 생각하다 보면 질문하는 게 두려워져요. 나 자신 없는데? 그럼 질문도 막히죠. 근데 출발이 반대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질문부터 해보고 저질러보고 시작해야 돼요. 막상 뒤를 생각하니까 저지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말을 꼭 나에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고립된 인간이 아니고 관계적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집에 가 보면 대략 그 사람이 어떤지 알잖아요. 지역 분들을 봐도 비슷해요. 처음에 예를 들면 첫 미팅 때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느낌을 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그 지역 연구를 하다 보면 왜 이 지역이 이런 분위기구나 조금씩 꺼리가 나와요.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문제의 이면이 뭔가?' 예요.

제가 지역연구 할 때 독거노인의 어려움은 식사와 빈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와 외로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와 아이는 모두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해 얘기해보고 싶은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인터뷰였어요. 그런데 인터뷰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어르신을 만날 때 독거노인을 만날 때 인터뷰는 저 혼자 가기에는 좀 그래서 저 혼자서 중년의 여성 지역 활동가를 같이 모시고 갔어요. 둘이 갑니다. 저는 앉아서 차분히 어르신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고, 그 중년의 여성 지역 활동가는 양해를 구하고 어르신의 집 방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수시로 제 질문에 덧붙여 추가 질문을 하세요. '혹시 어디 화장실 안 미끄러워요?' '이거 싱크대 높이는 맞나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이 초기에 이 단했던 말이 조금씩 열리면서 서서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반면 학부모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 사람 씩 만나면 얘기가 잘 안 나와요. 특히 아이들은 혼자서는 절대 얘기



강사님은 질문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경청'이라고 했다. 경청할 생각이 없으면 질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 역시 그것이 정답/해답(Solution)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할 것은 '실천하기'로, '질문하기'와 '실천하기'를 함께 결합하면 변화가 생긴다고. 그는 질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그중에서도 나에 대한 질문의 경우 꼭 나 자신에게 하기보다는 나의 친구나 나의 주변(집, 동네)을 보라고 조언했다.

를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 친구까지 해서 2명 3명 정도가 꼭 모이면 난리가 나요.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까지도 다 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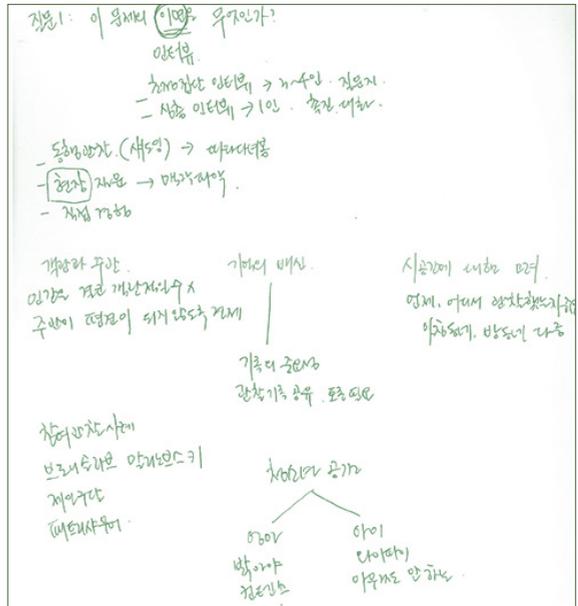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말문을 트기 위해서 전략을 달리 써요.

저희 같이 지역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독거노인을 만날 때는 저 혼자 가면 오히려 어르신이 부담스러워 해요. 근데 딸 같은 예를 들면 여성분이 함께 가서 얘기를 나누면 한결 얘기가 잘 풀려요.

중요한 건 사전 질문지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3명 5명하고 동시에 수다 떨려면, 질문지 안 만들면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까먹어요. 그리고

때로는 1 대 1 인터뷰는 질문지 없어도 돼요. 오로지 이분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촉진하고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터뷰 질문 던지고 나는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해 놓고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인터뷰하면 춤 못 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동행 관찰’은 뭐냐면 ‘세도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연구할 때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서 병원 어떻게 가시고 어디 어떻게 따라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곳곳에서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막연하게 이 동네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막 돌려요. 근데 사실 설문조사 결과물을 통해서 얻는 것도 크지만, 실제 해보면 그 지역 현장에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와 닿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후 강사님은 몇 가지 유효한 질문과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질문 1: 문제의 이면은 무엇인가?

강사님은 '나'의 편견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연구의 방식인 인터뷰를 소개했다. 질문의 내용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이재경 강사님은 이후 ‘참여관찰’의 방법인 동행 관찰, 현장 질문, 그리고 직접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동행관찰(새도잉)이란 지역 주민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직접 경험하고, 그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깊숙이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이 과정 중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선 나의 편견을 지운 채 백지상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난겨울에 또 누가 넘어졌어!’ ‘알아~ 며칠 전에도 불났잖아’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설문조사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고 세도잉을 하다 보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저기가 미끄럽겠구나. 열심히 현장 조사할 때는 조사원 5명을 일주일간인가... 그분들의 동선대로 똑같은 길을 거의 세네 바퀴 로테이션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야간에 걸쳐서 막 돌았거든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막 나와요.

여기서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인간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말고 백지 상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예로 독거노인과 이야기 하며 알아낸 것은 그들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휘청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고 이리다 보면 휘청거리는 이 불안감 속에서 내가 혼자 사는데 넘어지면 ‘큰일 난다’ ‘끝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시락 필요 없어요. 요즘 독거노인들한테 하루에 도시락이 많은 경우에는 4개 5개씩 들어와요. 복지관에서 보내줘요, 주민 센터에서 보내줘요, 어느 교회에서 보내줘요. 먹는 건 넘친대요. 외로움은 역시 마찬가지 도시 배달하면서 문 두들겨요. 전화 무슨 무슨 사랑의 콜 또 어디서 안 오면 목사님이 찾아오신대. 등 등.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거야. 그런데 낙상만큼은 누구도 해소해 줄 수 없어. 이 시점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다? ‘안전 손잡이’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절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기억의 배신이에요.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요. 기록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 시공간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20대 여성은 이렇게 우리 동네는 불안하다고 하고, 왜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말하지? 어느 동네나 조사를 다 들어가 보면 심중팔구 고령자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하시고 젊은 분들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한 집에 사는 엄마 딸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도 편견일지 몰라요.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시간이 다르잖아요. 들어오는 시간. 같은 골목길이야 한 집에 사는 엄마 딸에게도. 그러나 엄마가 다니는 시간대 이 골목길은 너무나 안전해. 딸들이 다니는 시간대는 어때요? 뭔가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골목길인데도 엄마와 딸이 사는 골목길의 세상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이 동네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문조사에서 불안하다는 응답 많이 나오면 그냥 불안한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엄마와 아이들이 모두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엄마들과 아이들을 각각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공간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엄마들만 만나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엄마들이 원하는 아이들 공간의 3요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 왜? 어두우면 사고 나니까. 2번이 뭘까요? 요즘 어머님들이 세련되어져서 이제는 국영수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 뭘가는 해야 돼. 특히 문화 활동. 춤을 추든 기타를 치든 상관없다. 해야 된다. 요즘은 춤추고 기타 치는 거 뭐라 안 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이제는. 그것도 좋다. 근데 뭐라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의 가장 긍정적 키 포인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른이 있어야겠다.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뭐라도 애들을 가르쳐줄 사람, 이 애들이 언제 불 끌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된다 해요. 넌센스 퀴즈 같죠?

자, 이제 아이들의 3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어디선가 어른이 없어야 돼요! 소리에 일동 웃음) 그거는 너무 1번. 그거는 너무 아실 것 같고 1번 오케이 했어요. (어디선가 와이파이가? 긴가민가한 혼자 소리) 나이 차이일까요? (어디선가 아니요, 와이파이가! 소리) 오~



그리고 기억의 배신을 주의해야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시공간에 대한 기록은 필수적이라 설명했다.

강사님은 사례로 청소년 공간의 3요소를 들었다. 어른과 아이들은 각각 어떤 것을 꼽을까? 참여자들은 엄마들이 원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 척척 맞춰나갔다. 밝은 공간, 공부 혹은 생산적인 뭔가를 하는 공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반면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의 3요소는? 강사님의 질문에 참여자들은 잠시 고민했다.

‘어른이 없어야 해요!’

일동의 웃음을 자아낸 답변을 시작으로, 두 번째 정답인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 마지막으로 아무도 맞혀본 적 없는 정답인 무료 와이파이가까지. 다들 하나씩 정답을 맞춰나갔다. 현장의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일이 잦은 참여자들의 활동가적 특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니 선생님 저 이거 맞추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애들은 다 필요 없대요. 1번 무료 와이파이기가 터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2번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소파가 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운 듯 앉은 듯하면서 무료 와이파이를 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은 이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원하는 공간은 다르죠.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 줘요. 무료 와이파이 엄마가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조건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누운 듯 앉아있는 소파 어렵었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보내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삼양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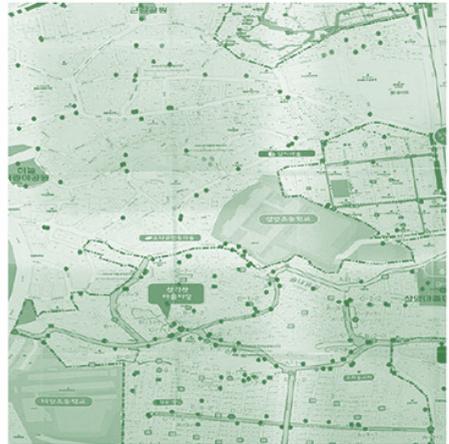


삼양동 개요

주민공론장에서 도출된 삼양동 지역의제인 ‘골목길’과 ‘안전’을 키워드로 현장조사 진행

5명의 조사요원이 조를 짜서 구간과 야간에 현장조사 진행

삼양동 총 37동 중에서 좌·우측 지역을 제외하고 2~11동, 20~32동 21개 통에 초점



질문 2: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

좋은 질문이란 곧, 의도가 좋은 질문이라며 강사님은 작은 사례를 하나 소개했다. 마치 기-승-전-결을 지닌 이야기처럼 실제로 해결되는 지역의 문제들에, 참여자들의 눈 또한 덩달아 빛났다.

이제 좋은 질문 부분. 아까 지도에서 파란색 점 보셨죠, 제설함이에요. 삼양동에 조사 연구를 나가서 사람들이 자꾸 사진을 찍어 오는데, 사람들이 찍어 오는 사진에, 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저렇게 맨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고 남의 집 그런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 계신 거야. 젊은 사람은 중간에 앉아 쉬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한 번에 집에 못 가시는구나.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따졌어요. 왜 벤치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수십 년간 시도했는데, 땅이 전부 사유지래요. 삼양동이 옛날에 개발시대 때 땅을 이렇게 구분해서 팔면서 골목길도 팔아서, 공유지가 아니고 골목길이 다 사유지인 거야. 벤치를 설치하려면 땅에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땅 주인들이 등장한대요. 내 땅을 사야지만 박을 수 있다. 그래서 벤치 설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들이 조사원들이 찍어온 사진에 얘가 엄청 많은 거야. 느낌이 오시죠? 연구하다 보니까 얘가 엄청 많아. 근데 얘 장점이 뭐니까? 수십 kg 짜리 모래와 무슨 제설 왜 염화칼슘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움직이질 않아요. 저건 바닥에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면 그만이에요. 이거, 뚜껑만 날려버리면 이걸 벤치 아니야? 마침 그 5명의 조사원 중에 한 명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해서 본인 졸업작품전 하겠다고 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느린 속도이나마 강북구의 경사진 곳곳에 조금조금씩 설치되고 있어요. 저는 좋은 질문이 저건 거 같아요. 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저렇게 맨바닥에 앉아 있지라고 하는 이 화. 저는 거기서 좋은 질문이 추가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좋은 질문의 핵심은 어떤 종류의 애정 표현이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드려요. 저는 동네는 언제나 공간과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고 많이 하는데, 저의 세 번째 부분은 이거였어요. 무엇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일상 문제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일상의 보수성 얘기했죠. 일상이 보수적인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보수라는 그런 거잖아요. 좋아 지금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요 설문 조사해 보면요, 우리 동네 문제없다라는 항목을 저는 항목을 항상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문제없는데 왜? 그렇잖아요. 동네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바꿀 게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 드리는 게 일상을 문제화해라. 아침에 눈 뜨고 집에서 나오시고 집에서 바깥에서 일 하시다가 들어가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왜 없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혹시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짜증나는 일 없냐 시장 보시는 길에 뭐 화나는 거 없냐? 뭐 하다 보면 뭐 불편한 거 없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곱씹어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 3: 무엇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가?

강사님은 일상의 문제화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익숙한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덮어둔 큰 문제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동네에 뭐가 짜증나세요?’ 이런 문제의식은 공간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동네에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닌, 공간과 사람이 합쳐진 것이 바로 그 동네라는 것까지도 인식해야 한다고.

분들은 이걸 더 멋있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신선하게 보래요. 어제와 같은 눈으로 보지 말고 오늘 새로운 세상을 보듯이 세상을 보래요. 그러면 무언가가 보인대요.

왜 집에 가는 길이 어둡지? 반드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빨리 다니지 왜 어두운 길을 다니냐고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누구도 불안하지 않게 사는 세상 만드는 게, 좋은 세상 좋은 동네 만드는 거 아니냐. 왜 집에 나 있는 밤길이 어둡지에 대해서 일찍 다녀라 폭력적인 거죠. 저걸 해결해 줘야죠.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영국의 행복 연구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 경이 행복 연구 계에서 대가예요. 이분이 연구한 행복의 핵심 요소 7개. 첫 번째 1번 가족 관계. 가족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두 번째 재정 상황. 당연하죠. 세 번째 일. 내가 만족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행복하다. 네 번째 공동체와 친구. 어떤 공동체에 사는지 친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건강이에요. 앞에 조건도 다 갖춰져 있어도 건강하지 않고 누워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자유입니다. 요즘 점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자기선택권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선택권이 없으면 불행하다. 일곱 번째 개인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얼마나 행복의 우호적이나.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명확한 관계 변수가 있어요. 제가 궁금증 변수라고 썼어요. 뭘니까 가족 관계, 간접적인 공동체, 자유와 개인의 가치관.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자기 선택권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좋은 관계는 뭐예요. 부모님하고 나의 관계가 좋은 게 뭐냐? 결국은 내 선택권을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냐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연세가 좀 드신 다음에 자식들이 내 삶에 막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활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박인환 배우가 발레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자식들이 한번 남사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나 어릴 때 꿈이 그거였다고 하죠. 그 집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자식들이 좀 인정해 주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죠.



이 질문은 곧 나의 관계는 어떤가? 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강사는 말을 이었다. R. 레이어드가 진행한 행복에 관한 Big 7 연구에서 그 중의 네 가지 이상이, 더 넓게 보면 전부가 관계와 연관 있는 항목이었다고. 첫 번째 가족관계, 두 번째 재정 상황, 세 번째 일 (만족하는 일), 네 번째 공동체와 친구, 다섯 번째 건강, 여섯 번째 자유 (자기 선택권), 일곱 번째 개인의 가치관

유럽과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퇴직 이후의 행복도가 뚝 떨어진다며, 강사님은 이러한 현상이 일에서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회 관계적 활동은 시민 행복에 영향을 끼치며,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관계제', 혹은 '평판자본'과 같은 용어로 정의를 시도한다고도 설명했다.

개인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정립하는지는 철저하게 관계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7개 변수 중에 4개의 변수가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상 제가 받은 7개 중에 7개 전체가 다 관계랑 연결돼 있어요.

칼마 : 혹시 죄송한데 3번 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 안 넣으셨잖아요.

이재경 :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7개 전부다 사실상 다 다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 했었죠. 관계도 중요하고 내가 어디 사냐도 중요하다고. 선생님들 어디 사세요? 제가 경기도만 뿔아 왔어요. 이거 국회 미래연구원이라고요 국회의장 직속의 연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 행복 지도라는 걸 매년 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재경 : 동네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동지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여기서 말한 비슷한 수준은 비슷한 학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꽤 많이 작동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털린이라고 행복으로 유명한 얘기예요. 소득이 높아진다고 행복이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 어느 수준까지는 행복이 따라 올라간다. 그런데 어디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행복 수준은 그대로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은 이스털린의 역설이 깨지는 곳이에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촌에 살면 행복한 것.



질문 4: 나는 행복한가요?

이 같은 설명은 자연스럽게 ‘나는 행복한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강사님은 3년 전쯤 행복 연구를 진행한 경험에 대해 소개하며, 국회 미래연구원에서의 전국 행복도 지도를 PPT에 띄웠다. 내 지역은 어떻게? 참가자들은 이미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기도, 실소를 짓기도 하였다. ‘저걸 만든 것 때문에 진짜 불행해지고 하네요.’ 하는 씩씩한 농담까지도 흘러나왔다.

언제 행복하세요?



귀하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하루 중 언제 행복하세요 선생님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치를 보며) 회사 또는 학교를 갈 때 23명, 일을 하고 있을 때 96명. 저는 이거 보고 있으면 선생님들 어디 계신지가 되게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신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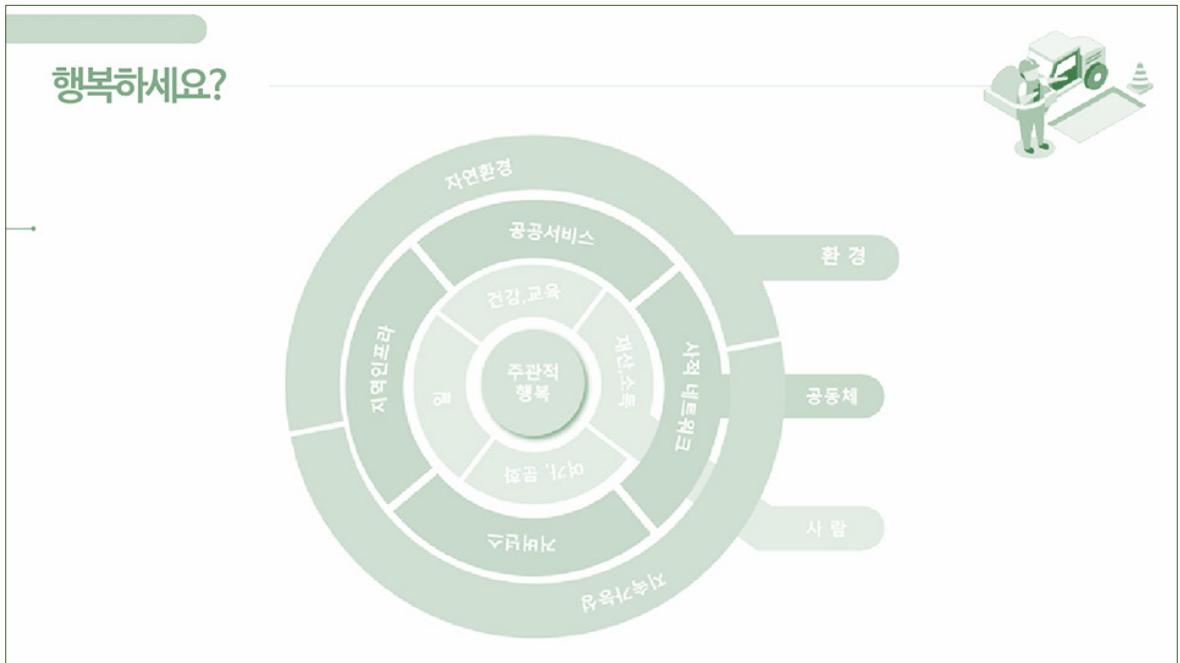
바람 : 근데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짧을까요?

주디 : 빨리 끝내고 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재경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특성이 안에 내부에 공단이 만들어진 지역이라, 점심 식사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바깥에 멀리 못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공단 내부의 점심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일주일 중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불행한 날 만난 것 같아요. (웃음) 그런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한 가지 확실히 했던 건 일요일은 무조건 낮아요. 왜 낮습니까? 월요일을 생각하니 사람들이 일요일 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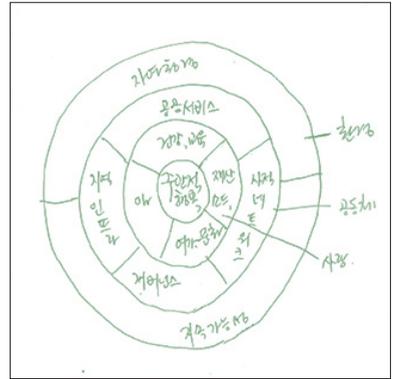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행복도(하루 중 언제 행복한지, 일주일 중 언제 행복한지)가, 선생님의 삶의 질이 지금 어떠신지 저 기준에 맞춰서 한 번씩 넣어보시면 나라의 사람을 보여줄 수 있겠죠.



(새 이미지를 띄우며) 이게 저희가 연구했을 때 나온 행복의 종합도를 한번 그려봤던 거예요. 당시에 인간이 행복하려면 사람과 공동체와 환경이라는 요인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으로 보면 일단 1번 일이 있어야 해요. 아까 말했던 일에서의 관계에 맞는 통합. 두 번째 건강.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하나 중요한 거. 교육도 중요하다. 또? 재산도 좀 있어야 돼요. 재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소득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겠어? 결정적으로 여가 문화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 지속가능성.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특히 누가 불행한지 아세요? 제가 열 군데 이상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행복도 조사 기후위기 조사를 해보면 그게 두 집단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일단 농민. 왜? 농사가 안 된대요. 오징어만 안 잡히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위로 북상한 대요. 또 하나가 뭐니까? 40대 50대 여성분들. 왜일까요? 자녀 때문이죠. 나는 살아가는데 나중에 진짜 2030년 2050년에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난리가 난다고 하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준비해 온 건 다 했으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행복 연구는, 행복의 왕도와 철학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 리곤 추가로 행복 연구 당시의 여러 자료와 행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소개했다. 경제 수준에 따라 얼마나 행복한지, 일주일 중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한지, 하루 중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한지 등등. 설명을 듣는 참여자들의 얼굴에 하나씩 자문의 빛이 드리워졌다.

사실 저의 연구 기법의 가장 핵심은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한 번 물어서는 답이 안 나오요. 처음에는 두루두루 물어보고 그다음에 의제가 좁혀지면 의제에 맞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한 번 물어봐서는 제대로 말을 안 해주시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된다. 사실은 인터뷰 설문 동행 관찰 모든 기법이 사실 질문이에요. 저 사람의 말만 일단 말 들어보자 인터뷰. 저 사람이 좋이는 어떻게 체크하는지 들어보자 설문지. 아까 말한 표정을 봐야 돼요 행동을 봐야 돼요 새도잉 하는 이유 뭐죠?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런데 행동도 거짓말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정보들을 살살이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집단 지성을 통해 판단하는 자리를 가져요. 솔직히 주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저한테 답을 원해요. 이 로컬이라고 하는 공간조차도 전문가가 다 들어오고 국가가 다 들어오고 행정이 다 지배해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결국은 주민이 이 로컬을 지켜내지 않으면 골목길조차도 다 뺏긴다.



지구인S :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의 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혹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저희의 활동에 대해 초점을 두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민병은 : 저는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각자 자기의 사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토리 선생님 지금 공방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아마 당면하는 질문도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공통 지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질문들을 선생님이 보시고 비슷한 사례를 같이 연동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재경 : 그래서 미리미리 한 팀이라도 (질문을) 모아서 주시면, 고민해보고 내가 연구했던 것 뒤집어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되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리 : 혹시 선생님 지금 행복하신지 여쭙보고 싶어요.

이재경 : 원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빈곤 연구를 하면 가난해지고요. 부자 연구를 하면 부유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 연구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저의 행복 연구의 결론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예요. 그러니까 행복 연구를 하는데 저는 불행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헛소리 하려고 길게 말씀드렸네요. (웃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민병은 : 어퍼셨어요. 그동안하고 이제 조금 좀 다르죠? 혹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아니면 느끼게 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나누고 글 쓰는 걸로 해요.

바람 :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경청하지 않는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고요. 선생님 얘기 중에서 일상을 문제화하자는 게 제게 와 닿았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인식 했었는데, 이걸 한 번 더 들춰보고 꺼내보고 다르게 보자 싶어요.

나영 : 저는 행복 요소를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 모든 게 다 관계하고 형성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지금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구나 했어요. 나에게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토리 : 저는 남이랑 나랑 다르다라고 인식하게 된지 몇 년 안 됐어요. 나랑 다르다고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고 산 지 얼마 안 됐고요.

아까 사진을 보는데, 나라면 어떨까가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저 들담에 들다방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피해가고, 멀리서 보이면 횡단보도 건너서 다른 쪽으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 진짜 편견을 참 많이 갖고 있구나. 이 편견을 깨는데 얼마나 걸릴까 했어요

별나씨 : 저는 지금 동네에서 마을 쓰레기 해결해 보자는 공동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들 4명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어떻게 하고... 하는 생각만 계속 했었어요. 쓰레기 관련된 재밌는 활동과 함께 매번 나가서 동네를 돌고 쓰레기를 줍는데,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선생님 우리는 계속 이거를 줍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에다가 쓰레



수업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각자 느낀 것들에 대해 나눴다. 바람은 일상의 문제화, 그것이 나쁘다고만 느낄 것이 아닌 한 번 더 들춰보고, 꺼내 본 뒤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해 인상 깊었다고 나눴다. 대장 역시 비슷한 감상이었다. 그녀에게 새로웠던 것은 '신선하게 본다'는 말이었다. 마치 야채나 생선의 선도를 의미하는 듯 한 그 단어가, 일상에 접목되자 새로운 울림을 갖게 되었다고.

행복의 요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지닌 관계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나영, 그리고 '늪어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주디가 그랬다.

기를 잘 버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내가 애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지? 어떻게 인식을 시키지? 하면서 의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아까 거기서 되게 공감했어요. 역시 직접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테에서 질문이 나오는구나 하고요.

주디 : 저는 지금 단독주택 3층에서 21년째 살고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 중 아파트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십 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걸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칠십이 넘어서도 그 삼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아파트에 가서 살까? 이런 게 진짜 제 질문이 되버렸습니다.

민병은 : 모두가 늙어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죠. 예전에 신중년 관련 연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늙은이는 언제부터 늙은이인가. 법적인 용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64세는 늙은이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를 보는 관점을 늙어가는 존재로 본다면 나도 늙어가는 존재고 우리 애도 늙어가는 존재고 태어난 모든 것은 늙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늙어가는 존재로 보는 순간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늙어가는 존재여서 늙은이를 일종의 옆으로 치워놓는 나이 드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토리 : 제가 멘토로 삼는 분이 86세세요. 그분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창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때 되게 혼났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니 갱년기가 오는 것이다. 나는 나이 85세 됐는데도 하고 싶은 게 넘쳐나고, 아직도 동대문을 걸어 다니는데 너희가 그러지 말아라 해서. 그러니까 나 하기 나름이지, 내가 늙어서 못 다닐 거야라고 벌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런 얘길 들으니까 나 아직 젊네 얘기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걱정하는 시간을 자체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주디쌤은 3층 아주 잘 다니실 거예요.

깔마 : 아니 지난 토요일에 [참좋은수다] 갔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대표님한테 안 듣고 그분께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참좋은수다]에 대해서 우리 수업 듣는 선생님들한테 듣고, 또 그분한테도 들으니까



강사님의 다양한 사례 또한 참여자들에게 생각할 거리가 된 듯하였다. 토리의 경우 둘 다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왔어도 피해 갔겠지. 했다고.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깨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고백했다.

별나씨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 떠올렸다. 그녀가 진행 중인 ‘동네 쓰레기 없애기 모임’은 아이들에게 문제 인식을 시켜주며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진행하며, ‘사람들은 은근히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아이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키며 직접적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생생하게, 또 각자의 이야기가 뽕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장 : 저희도 사실 기획자하고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꼭 저희 안에서 기획자를 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듯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팀 안에서 폭주 기관차처럼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성원들도 조금만 더 하자는 걸 보면서, 이거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걸 거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네 싶었어요. 그리고 [참좋은수다]가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아, 우리 팀들도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했어요. 서로 느끼는 공감대는 같은데, 하는 일은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르니까. 서로 소통하면 거기서 또 굉장한 시너지가 나오겠다는 느낌을 받고 와서.

지구인S : 비슷한 생각을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가서 얘기 했는데, 기획자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본인의

선택에 단체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강계 내면 다 빨간색을 낼 수가 있고. 근데 여러 가지의 견들을 들으면 똥색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색깔이 아니라, 똥색. 색깔을 분명하게 내기 위해서는 리더가 바쁜 것도 필요하지만,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흐려진다는 얘기겠죠.

[참좋은수다]는 좀 달라요. 다 독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각자 색깔을 좀 내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이 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토리 : 맞아요, 저희 대표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요. 다 듣고 각자 고민도 다 하고.

갈마 :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느낌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제시되는걸 저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가 사례를 통해 실천 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솔루션이 아니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마을 안의 아이들 안전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대화가 없으니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사실 먼저 딱 들 정도예요. 또 이거 붙잡고 괜히 힘 빼보자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솔루션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를 오늘 딱 얘기해주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이 되게 기대되네요. 정말 생생하게, 또 각자의 이야기가 뽕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장 : 저희도 사실 기획자하고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꼭 저희 안에서 기획자를 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듯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팀 안에서 폭주 기관차처럼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성원들도 조금만 더 하자는 걸 보면서, 이거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걸 가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네 싶었어요. 그리고 [참좋은수다]가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아, 우리 팀들도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했어요. 서로 느끼는 공감대는 같은데, 하는 일은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르니까. 서로 소통하면 거기서 또 굉장한 시너지가 나오겠다는 느낌을 받고 와서.

지구인S : 비슷한 생각을 [우당탕탕 예술놀이단] 가서 얘기 했는데, 기획자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본인의 선택에 단체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화가 없으니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사실 먼저 딱 들 정도예요. 또 이거 붙잡고 괜히 힘 빼보자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솔루션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를 오늘 딱 얘기해주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이 되게 기대되네요.



성공적인 사례 때문이었을까, 갈마는 자신이 지내는 마을의 문제가 떠오르며 오랫동안 진행해온 자치 회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자신의 질문을 준비해서 보내는 차시의 숙제를 해올 의욕이 생겼다고 나눴다.

이후 참가자들은 각자 다녀온 탐방지에 대해 나누었다. [참좋은 수다]를 다녀온 갈마와 대장은, 리더만을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그에 대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었고, 또 기획자로서 자신의 팀원들에 대해 떠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을 다녀온 지구인 S는 참 좋은 수다와는 색깔 차이가 명확하게 달라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나눴다.

같이 해보는 나의 질문에 응답하기

이재경 : 몇 가지 질문들을 보내 주신 게 있는데, 답은 아니고 저의 경험을 (먼저) 그냥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번2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저희가 의제가 뭔지 좀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5,6,7월 3개월

간 의제를 막 찾아다니는 시간을 했었고. 그다음에 심화 단계로 8,9,10월에 이것 심화시켰어요. 이 과정이 뭐냐면, 동네에 들어가서 딱 조사 연구를 하면 수십 가지 문제가 쏟아져요. 여러 문제를 찾아요. 의제 발견해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문제 몇 개를 줄여요.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도 동네마다 들여다보면 맥락이 다 달라요.

선생님들이 오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심화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제 때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요. 그 의제 중에 다 할 수 없잖아요. '문제 정의 공론장'이라는 걸 한번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제를 한 두세 개쯤은 압축을 해요. 하나면 좋은데 하다 보면 도저히 압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서로 논의를 거쳐서 투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논의도 하면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몇 개의 문제가 선택되면 그 문제를 파고들어가는 게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견 단계.

그래서 초기에는 설명회부터 시작합니다.

로컬 랩이 뭔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부터 안내했어요. 그 다음에 공연장과 '팝업 샵'이라고. 예를 들면, 저희는 애어른 구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동네에서 사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우리 동네를 가장 아는 건 아주 냉정히 말씀드리면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에게요. 왜? 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동네에 있어요.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 점점 학원을 간다든지(해



이전 회차 때의 기대감이 현장에 가득했다. 강사님은 여러 PPT를 이용해 번2동의 로컬 랩 사례와 삼양동의 사례에 대해 살폈다.

이는 공론장의 연속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제를 찾고, 이를 날카롭게 하고, 최대문제를 확인하며, 공론장을 통해 필요한 것을 압축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노력이 담뱃 담긴 과정에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욕이 없을 것 같아서 조끼 하나씩 맞춰갖고,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동네 한 바퀴씩을 도는 거예요.

효과는 두 가지였어요. 저 조끼를 입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캠페인 효과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해 주시는 말이 있고 이 과정에서 기획단으로 참여한 분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실에 앉아 있다 보면 공간에 대한 기억들을 까먹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는 순간 나 여기서 사고 날 뻔했어. 여기서 치일 뻔했어. 이런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요. 동네에서 한 열 몇 명이 어떻게든 동네를 우르르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고 활동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의 경험담, 넘어진 얘기, 뭐가 위험하다는 얘기, 밤에 너무 뭐가 안 좋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연구팀들은 사진 찍고 다 적어요. 심지어 액션 캠까지 장착해서 들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하도 차량이 빨리 다닌다고 하셔서 스피드 건도 준비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한번 다 찍어 봤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 워크숍을 했죠. 골목길 의제 중에 특히 교통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 서울에 찾아보니까 녹색교통이라고 하는 교통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체를 연결을 했어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외부 자원을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했어요.

이렇게 동네를 들쭉시키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구의원들 귀에도 이런 말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분의 구의원이 뭘 저희한테 역으로 요청을 해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냐?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개 부서를 얘기했어요. 교통안전과 도시재생과 무슨 이런 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팀장급이 되면 이미 어떤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실 말씀들을 하면 저 공무원들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풀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일정하게 구청에서도 인식하고 있단 걸 하나 확인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이 의미가 있었죠.



여러 활동을 통해 동네에서 반향을 일으키자, 이는 정책 제안 간담회의 기회로도 이어졌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마을 축제에 구청장이 찾아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해당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쓰게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사님이 보여준 사진에, 참여자들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웃음 지었다.

깔마 질문

-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눈과 시간, 어떤 태도와 리듬으로 관계 일상을 바라볼 것인가?
-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저는 사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많이 심란했어요. 왜 우리는 교통 문제 관련해서, 나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캠페인도 하고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데. 작은 성과밖엔 못 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재경 :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로컬 랩 할 때 지역 활동가들이 1년 지나고 소회를 나눌 때 얘기할 때, 우리도 그간 지역 활동가라고 자임했으나 지역 문제를 이렇게 깊숙하게 심층적으로 들어와서 해본 건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활동은 주로 의제 중심 활동이었다. 문화 기반 문화, 환경은 환경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안경을 끼고 그간 지역을 바라봤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 좀 안경을 벗고 활동을 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말씀하신 효과도 있었어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걸 막 잘했다기보다는 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걸 해법도 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니까 그럼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안 풀리겠다는 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드러고.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거버넌스를 하는 거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 지금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도 느끼고 있는 건, 문제점과 한계점들이예요. 또 여전히 많은 지역들에서 주민자치회가 해결됐다고 해도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이 과정들을 똑같이 하는 못해요. 근데 다섯 군데 정도가 있으면 한 군데 정도가 성과가 나와요.



이후 각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깔마의 질문에, 강사님은 자신이 소개한 사례가 충분한 답이 되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사실 지난 시간 자신의 동네의 심란함을 토로하였었다. 마을 자치회가 어느덧 10년이 넘었음에도, 캠페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고.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너무 순진하고 우직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지역 문제에 대한 깊숙한 접근이 없었다는 것을, 문화적 접근만을 고려했다는 것을,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바람 질문

< 마을 기록 >

- 마을에서 기록의 의미? 기록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굳이 왜?
- 누가, 왜 하지? : 개인적 호기심과 공적인 영역이 다른가?
- 기록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있는가? 읽을 사람이 있을까, 꼭 읽을 사람이 필요한가?
-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까?
-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단지 오래된 거? 아님 어떤 호기심?
평범한 (일상적) 것들의 의미? 쓰려는 (기록) 하는 자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는?
- 쓰는 것이 기준과 한계는 누가 정하고 필요한가?

이재경 : 제가 어제 엇그저께 어느 일본 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앞으로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래요. 고령화가 심해져서 앞으로 상당수에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디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근린의 가까운 공간에 밖에 못 살아요. 이번에 코로나 19 겪어보니까 우리가 알았잖아요. 못 움직이면서 동네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고령화가 되면 못 움직여요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 점점 마을의 중요성은 커질 텐데 마을에 대한 기록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로컬랩 과정은 서울 마을센터에서 대부분 보고서를 책자로 내놨 거든요. 모든 것의 끝은 글쓰기입니다. 글로 남겨놓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저는 선생님들이 하신 활동들을 남기 위해서도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록하는 건 둘이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사마천처럼 뭔가를 후대에 위해 뭘 남겨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 또 하나 두 번째는 일종의 본능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저는 선생님들이 어느 입장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속 하시라. 왜냐면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된다. 기록을 해놓고 나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에 답도 할 수 있어요.



마을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바람에게, 강사님은 모든 조사 연구의 마지막은 글 쓰기라고 답했다. 세상에 이런저런 기록들이 범람하지만, 막상 마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으니, 계속 해보시라는 의견이었다. 그녀 역시, 결국 기록자가 이긴다는 강사의 말에 크게 동의하는 듯했다.

주디 질문

- 우리 동네 담배 피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요즘 모든 건물이 다 금연 건물이고 공원들도 금연 구역이고 대중이 모이는 모든 구역이 다 금연 구역이다 보니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는 실 공간이 없습니다. 담배 피는게 죄는 아닌데 말입니다. 저희 동네는 원래 조용한 단독 주택이었는데 건물주들이 리모델링하면서 한 층에 많게는 여섯 가구 적게는 네 가구로 쪼개서 세를 놓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신도시라고 말하는 저희 동네도 주차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네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이 진행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경 : 그 다음에 주디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신고는 화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 일상의 문제로는 사실 범대로 한다는 것들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담배 피우는 게 죄는 아닌데라고 적어주셨던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자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CCTV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 편하려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렇게 출동 온다고 해봤자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별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당사자하고의 대화, 근데 이 당사자들이 1대1로 하면 싸움 나니까.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는데, 저러면 아무 문제도 못합니다.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걸 누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거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대면에 접근하고, 거기서 벽이 막혔다고 그다음 진도를 못 나가시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또 그 경험이 누적돼 있어야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흔히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주민자치회 하면서 왜 지치냐?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풀어가는 경험들이 누적되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어요.



주디는 동네에서의 담배 문제를 토론했다. 강사님은 ‘법’과 ‘신고’가 오히려 갈등을 촉발한다는 코멘트를 달았다. 그는 돌 다방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국은 당사자와의 정밀 대화라는 측면이나,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답답할 수 있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토리 질문

- 지역에 대한 질문 : 왜 아파트 주차장이 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주차장을 이용하는가?
- 내년활동을 위한 질문 : 플리마켓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좋을까?
- 개인적 질문 : 공방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재경: 토리님이 주신 질문은 저도 연구해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상가 주차장에만 저렇게 차를 댄까. 현장에 가서 참여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차주 분들과하고 얘기 나눠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보실 수 있다면 이것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상 인간의 행동은 쿼티 자판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판은 되게 불편한 자판기, 우리 몸에 안 맞는 거래요. 근데 인간은 경로 전적이라고 뭐가 하나 생기면 그걸 그냥 그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또는 찾아보면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질문을 보며) 연구자로서 사실 플리마켓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거냐고 적어주셨는데. 핵심은, 그전에 했던 활동은 반드시 분석해 봐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새로운 아이템과 콘텐츠만 가져온다고 하는 건 연구자로서는 안 맞아요. 만약 저런 의뢰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꼭 이전 년도 자료들을 쭉 훑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 시간대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 특정 시간대 특정 콘텐츠 특정 뭐가 빈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꿔보시는 방법은, 시간대를 바꾸든지 콘텐츠를 바꾸든지 참여자가 많았다고 하면 다른 참여자를 어떻게 데려올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거죠. 어떻게 됐건 그 전년도 전년 연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공부할 때 옛날 선생님들이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평가잖아요? 연구자로서는 이런 것들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역 내 주차장에 대한 질문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플리마켓 그리고 공방에 대한 토리의 두 가지 질문에, 강사님은 답했다. 인간이 지닌 경로 전적, 즉 뭐가 하나 생기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경향성이 이유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정밀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사님은 연구자로서의 핵심에 관해 설명했다. '반드시 이전에 했던 활동에 대해 분석해 봐야 한다!', 연구자에게 어떤 의뢰가 들어올 경우 이들은 이전 연도 자료들을 쭉 훑어본다고 한다. 진행한 방식, 시간대 등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특정 시간대와 콘텐츠 등 빈도가 나온다고. 이를 통해 요소들(시간대, 콘텐츠, 참여자 수와 동원율 등)을 바꿔보는 고민과 과정이 필요할 것 같으며, 이런 자기평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구인S 질문

<나의 고민>

1. 지역 안에서의 현황에 대한 대응과 활동이 아닌 개인의 이슈에 집중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성장과 고민은 넓어지는 반면 지역내 이슈와는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 개인과 지역을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2.제가 진행하는 활동들은 워크샵 형태입니다.

제가 전체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준비기간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문을 통한 기획방향 설정? 다양한 사전 준비과정(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내년 고민>

내년에는 기존멤버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연령대나 세대 확장을 해보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다른 고민>

올해 활동 중 제가 진행하는 워크샵이 확장되어 지자체의 행사와 연결되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5번의 활동 중 문화쇼핑을 하듯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참여는 나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활동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홍보방법/활용)? 접근방식?

이재경: 혹시 또 더 있나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자로서 지역 데이터를 소개하려는 방법으로 프레임 짜고 들어간다. 우리 동네가 이래요,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하고 1인 가구가 이렇게 많고요.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하면 발언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서부터 지역 데이터 먼저 들고 시작해서 말씀들 드려요. 많은 마을 연구에서 '동네 한바퀴'를 그래서 하는 거죠. 현장을 같이 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좋은 날씨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을 즐기



지구인 S는 지역과 개인의 이슈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질문을 공유했다. 이에 강사님은 앞서 설명한 지역 데이터 우선의 진행 방식과 연구자 스스로 진행하는 동네 한 바퀴를 소개했다. 동네를 다니고, 바라보는 것 속에서 개인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

또 추가로 연령대와 세대 확장을 위한 접근방식에 대한 질문에, 다른 세대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려는 마음으로 하시면 우스워 보이지만, 세계 하면 되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동네를 다니고, 바라보는 것 속에서 나 개인이 아니라 동네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 저런 식으로 처음서부터 프레임을 짜고 들어가면 연구자로서의 참여자의 시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 질문) 내년에는 다른 연령대나 세대를 확장시켜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즘 주민자치회 위원

님들 붙잡고 제가 질문 5개씩 만들어보시라 그래요. 다른 세대에게 질문하기. 20대 청년 30대 기혼남 70대 어르신 등등 범주를 드리고, 질문을 5개씩 만들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과감하게 요즘 청년들이 싫어한다는 질문이 나와요. 결혼을 했어요? 애는 있어요? 집은 자가예요? 그분 들은 애정인 거죠, 아들 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런데 이 애정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질문부터 만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세대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질문을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약은 뭘 드세요? 이런 질문들. 부모님,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엄마 그냥 약을 막 몇 개씩 드시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할 말이 있는데 젊은 세대하고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거칠죠. 또는 편견만 많이 보이는 질문, 맛집 이런 질문들이죠. 그나마 발전된 질문이지만, 젊은 사람한테 대뜸 우리 동네 맛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내가 과연 다른 세대하고 뭔가를 확장시켜볼 생각이 있다면, 다른 세대에 대한 질문부터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말을 걸 수 있을까를 파악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튕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도 참여가 없으니까 참여해 주는 게 고마워서 다 받아들이는데, 사실 형식적인 면접도 다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다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번씩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활동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엔조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거고요.

대장 질문

-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서사를 잘 표출할 수 있는 글쓰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

이재경: 저도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말씀 드리자면, 구성원들의 서사를 글쓰기를 표출할 수 있는.. 제가 도봉구 어느 마을 공동체 모임하시는 여성분들하고 실제로 글쓰기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출발은 종이 갖다놓고 펜부터 갖다 놓으시고, 모였으면 써봐야 돼요. 딱 거 없었어요. 그날 10줄 쓰시는 분도 있고 한 페이지 쓰시는 분도 있고 두 줄밖에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잔소리를 했어요, 무조건 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쓰신 글에 대해서 두 줄이건 10줄이건 제가 느낀 바나 이렇게 하시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아닌 것 같은데요? 등 등 코멘트 해드렸죠.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빨간색으로 첨삭 같은 걸 해드렸어요.

저는 글쓰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엔, 지금은 혼자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해 다들 지쳐 있다. 그분들한테 책을 더 읽어보세요. 뭘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글 못 쓴다. 그러니 차라리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촉진자를 한 명 두시든지 해서, 글쓰기에서 누군가는 등도 밀어주고 끌어 당겨주면 어느 순간인가 글쓰기가 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로 나눠도 읽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그런 의식을 부추겨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상을 바라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느리게 보긴 해야 돼요. 언제 동네를 3~4개월씩 바라보신 적 있었겠어요. 느리면서도 바빠야 되고, 시간은 넉넉하게 잡지만 상당히 집중력있게 꾸준히 해주면 뭐가 나오더라,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에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땠는지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발견-정의-발전-심화. 일단은 문제가 뭔지 발견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요. 그다음에 그중에 몇 개를 압축합니다. 그다음 그 압축된 문제를 더 발전시켜서, 더 파고 들어가듯이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내는 게 심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혁신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지역의 핵심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의된 문제에 관해서 심층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실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뭔가를 발견할 때는 엄청나게 확장시킵니다. 다 받아들여. 근데 이 중에서 핵심 문제를 정의할 때 구체화시킬 때는 좁히죠. 그다음 그걸 좁혀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할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넓혀요. 최종적으로 해결책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으니, 다시 좁히는 거죠.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는 디자인 기법이 기초입니다.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민병은 : 혹시 질문 있으세요?

주디 :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경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야 40대 이재경 선생님은 만족할까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이런 뻔한 질문 말고.

이재경 : 제가 그래도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나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질문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 해봤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랑 인연을 맺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아예 말도 안 해요. 처음에 그 존댓말. 이 과정이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한 달 지나가다 보면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 친구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친구도 저한테 익숙해져서 답변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씩 술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막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관계가 개입했다고 싶으면 그 질문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저도 오히려 제 얘기 다 하고요.

그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봐요. 요즘은 정말 그 관계에서 숙성의 시간. 특히 다른 세대하고의 관계에는 정말 그게 많이 필요하겠단.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제 개인의 경험은 그런 거였어요.

주디 :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면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되네요?

이재경 : 고민을 더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질문하실 게 없을 거예요. 청년들을 커머닝 하려고 하지 말고 청년이 커머닝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들을 ‘청년들’로 묶어 보잖아요. 정말 진지하고 깊게 이 친구들하고 정말 대화를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전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들하고 뭘가 얘기해야 되는 게 시대의 분위기인 것 같고 뭘가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죠. 가끔 지역 활동을 하면 재네들이 자원이니 까 말 그대로. 근데 이미 청년들은 얼었어요. 딱딱히. 근데 그럼 이거를 그냥 일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가서 외쳐봐야 그 얼음은 안 깨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정말 축적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람 : 그러면 3년을 그렇게 번2동에서 보내셨잖아요. 본인한테 가장 크게 남은 건 뭐예요? 삼양동 빼놓고 번2동.

이재경 : 사실은 조직가들이 지역에 깊숙이 있었던 거고.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글썄요, 딱히 뭐가 남았다기보다는 저한테는 또 다른 형태로 지역 경험이 남은 거죠. 그래서 겁이 점점 더 없어지고 나 할 수 있어 어디든지 가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생기죠.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강의를 할 때 나왔던, 어두웠던 골목길

거기서 밥 먹었던 식당 아까 돌아가셨다는 그 분 얼굴. 그런 게 없어지지 않고 채워져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민병은 : 사실 주민의 아젠다는 전문가들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삶에 기반하는 마을의 아젠다를 정말 가지고 가야돼요. 결국은 누군가의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지역 주민 참여가 핵심이에요. 주민들과 한번 통로를 터야 활동가들이 숨을 쉬고, 활동가들이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한다고 동네에서 알아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바람 : 제가 '기억'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생각만 있었지 더 깊이 가진 못했어요. 기록이 인간의 기능이란 걸 듣는 순간,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 그게 어떤 형태인지 그게 조금 느꼈습니다. 내가 기록에 집착하는 건 내 어딘가에 있었던 거고, 그게 어떤 쓸모가 있던 상관없이 나의 시각으로 보는 나의 기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굉장히 기록이 귀찮았거든요. 근데 왜 기록을 하려고 하니, 누가 그 기록을 궁금해 하니, 그건 너만의 소리인거잖아... 계속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을 못했어요.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되면 안되나? 내가 궁금해서 내가 소리가 궁금해서 기록하면 안되나? 계속 그런 질문들이 제 스스로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니까 그 기준이 내가 되는거지. 그럼 누구를 할 거야. 이런 질문도 내 속에 새겨져 있는 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직관으로 그냥 움직여주면, 그것이 훨씬 더 살아있는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깔마 : 저는 지난주에 강의 듣고 동료들한테 정말 힘들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아이들은 추상적이고 낯은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또 새롭게 보는 것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기본이 되게 좋았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생활문화플랫폼 안에서 다른 팀하고 같이 교류했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하고 성공적으로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주(여주시에서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함)는 여주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되지만 그 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저희는 온라인에다가 계속 써야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오늘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게 그런 것이어서 좋았고.



수업이 끝난 뒤, 각자 느낀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 깔마는 마을의 이슈를 지원사업과 단체의 활동 그리고 성과와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며, 누군가를 모셔 와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2년 정도는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바람 또한, 관내 대학 등 근처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면 이야기를 엮었다.

또 저희가 이런 마을의 이슈와 기록을 연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걸 계속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혁신을 얻은 것 같아요. 아까 농담처럼 선생님께 마을로 와주시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 마을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2년은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바람 : 관내 대학교가 있을 경우엔, 예를 들면 우리 단체가 디자인을 할 건데 당신의 디자인과 애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버넌스가 작년부터 난리인데,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대학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민병은 : 문화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할 건지를 논할 때, 주민이 왔어요 하면 '누가?'라고 물어봐요. 누가 주민인데? 주민이라고 말하는 실체가 뭐야? 대표라고 하는데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대표하는 건지를 궁금해 하죠. 아주 구체화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체성을 가지는 데는 오래 걸려요.

바람: 저는 아까 와 닿는 게, 참여가 목표다. 그 얘기 들을 때였어요. 함께하는 이 자리가 좋아서 함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리도 조금씩 넓혀 간다는 거.

민병은 : 다른 분들 생각은?

대장 : 저희는.. 사실 제가 우연치 않게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곳이죠. 요즘 저희는 소소한 것들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는 너무 큰 것 들을 다루는 걸 마을이 겪었는데, 마을 분들이 그걸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모이면 저희 마을에는 또 다른 소생할 수 있는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비춰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거대한 조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공모하는 거 원하지 않구요. 저도 제가 공모 사업을 하지만 저희 이곳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서 그런 욕심이 또 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마을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번에 프로젝트 하는 팀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면 너무 재미있겠다. 그러니까 당장은 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타 단체들을 자꾸 만나면서, 여지껏 기획자들이 만들어준 게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조금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인S :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얘기를 했구요. 사실 저희는 지역의 이슈에 집중하는 활동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활동으로 떼놓고, 큰 걸 얘기 하실 때 저는 더 작은 걸 들여다 봤어요. 예를 들면 지

역을 공론화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단체 내부에서 사람들이 집중해 공론화시키고 문제화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더 날카롭게 보고’. 이 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걸 더 작게 보니까 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것도 동떨어져 있는 질문들이 아니고 나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결국은 사람이 남는 거고 주민이 남는 거고 이런 것들은 크게 동네의 주민들을 얘기한 거겠지만, 나한테는 사람이 남는 거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 활동가들이 남는 거기 때문에 나는 조금 작게작게 들여다보자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의 답은 아까 그 선생님이 복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작년에 활동들을 들여다보고 나를 스스로 보는 생각을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나 내용에 대한 해답, 다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정말 내가 했던 것들을 복기해보고 해답도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체 간의 교류도 되게 중요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역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전혀 다른 문제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 :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문제든 단체의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어쩌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펼쳐놓고 거기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또는 안에 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그 문제의 해결을 풀어서 보는 과정들이 개인한테도 필요하고.

토리 : 저는 선생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지도가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해요. 나는 내 동네를 그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혼자 이렇게 막 그려왔는데. 딱 우리 집 주차장까지는 되더라고요.

내 공방이나 작업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지 어떤 걸 하고 놀까 누구를 불러서 놀까 나 혼자 놀까? 막



이에, 민병은 선생님의 ‘문화’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영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민이고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지 같은 구체적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런 구체적이고 다양한 준비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까지도.

대장은 주민 자치회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역 내의 크고 작은 반목에 소소한 작업을 찾아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장을 같이하는 등. 일전에 <동네에서 밥 한 끼 합시다> 류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행정으로 인해 규모가 비대화 되며 개인에게 닿는 진정성이 떨어지게 된 적이 있다고. 이제는 자본자본 작은 소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의 소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미쳤다. 그러나 강의 를 들으며 스스로 마을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과, 마을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 봐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주변에 어떤 공방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항상 내가 가는 길로만 갈까? 오늘 이거 보이지는 않아서 저쪽 길로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건 다 내렸고, 우리 동네 지도를 한번 내가 도보로는 못 다닐지언정. 살아보니까 한 번에서 세 번 사이 아까 얘기한 20km 이내로. 한번 다녀 봐도. 그러면서 슬슬 보며 여기는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도 좋겠다 싶어요.

나영 : 저는 오늘 사실, 되게 트이는 시간이었어요. 생각의 확장이나 정말 시야의 확장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문화만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어 잠깐 잊고 있던 거. 나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즐거운 시간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안에 뭐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아까 저희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저 저도 소통과 편안한 즐거움이 좋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주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주변이나 동네를 볼 생각을 많이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참좋은수다 구성원들은 곳곳에서 왔거든요.

일단 제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부흥동이 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청년과의 대화에서 고민하고 오지 않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민병은 : 생활문화에서 늘 주장하는 당사자성이 강조되는 이유인거 같네요.

주디 : 저는 아까 진짜 선생님께 한 질문처럼 진짜 청년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생각 안 했다 싶어요. 그래서 세대 간 질문을 연습을 해야 되겠고. 내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내가 즐거운 일 찾아서 해야겠다. 이게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이에요.

민병은 : 집에 90년생 아이 셋을 두고 있는데 초반 중반 후반 셋 다 다르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아이가 내 나이랑 비슷한 상사하고 트리블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어라 저거 난데?’ (일동 웃음) 순간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훌훌 빠르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젠더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계층 감수성도 중요하겠다, 아이랑 얘기하면서 저한테 놀랐고, 생각해 볼 것이 많아졌어요.



지구인 S 또한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를 느낀 듯했다.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이 큰 질문이 아닌, 개인과 단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문제인 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그녀의 말에 바람 역시 동의했다. 문제를 펼쳐놓고, 집중하며,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토리는 그 여러 가지 자료 중 공들여 만든 지도가 인상 깊었다고, 스스로 내 동네를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만의 지도를 만들며 다녀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갈마 : 저희 아들이 25살이거든요. 애가 인턴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선생님 딸이랑. ‘엄마 같은 나이의 사람은 나 같은 인턴한테는 좋은 말도 시키지 말고 나쁜 말도 시키지 마. 엄마 그거 절대 잊으면 안돼!’

바람 : 우린 조금 더 (센계) 있는데... ‘아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직서 쓰는 것 같아’...

갈마 : 그래서 내버려두라는 메시지를 엄청 많이 하는데, 묻지도 말고 그냥 놔두라고.



나영은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왔는데, 뜻밖의 생각과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주디는 세대 간의 질문을 연습해봐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했다. 자녀가 욕하는 꼰대 같은 상사 모습에 은은하게 비쳐 보이는 나, MZ세대들을 내버려 뒤편이라는 자녀들의 이야기. 어느덧 질문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자신들은 끼어있는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웃음 사이로 빠져나왔다.



전체 과정을 정리하고, 졸업식을 기획해보다

깔마 : 뭐랄 또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기획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다 동네 전문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 파티도 기획해야 되고 뭐도 기획해야되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날 편안한 자리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재춘 : 그냥 오늘 이번 주의 연장선으로.

깔마 : 그러니까 다들 지금 12월달에 엄청나게 뭔가를 기획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면에서 구미가 당겨요.

지구인S : 저는 처음에 여기 저희 <활짝학교> 시작할 때 비행이나 여행을 컨셉으로 잡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식은 짧게나마 여행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작은 사진전을 해볼까 했어요. 어떤 거냐면 거창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저번 주 수업을 들으면서 동네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딱 길로 한번 걸어보기, 내가 안 가봤던 곳으로 한번 가보기, 새롭게 보기, 신선하게 보기. 내가 이렇게 종착역에 오면, 내년에는 동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데 새롭게 발견하거나 신선하게 발견한 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게 나의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뽑아서 가져오면 일들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깔마 : 나중에 '나를 위한 기획' 때 발표하려 했는데, 제가 한 10월 한 달 동안 습식수채화를 혼자서 완전 야매로 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여기서 모두들 그걸 체험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제가 준비 해올게요. 간단하거든요, 종이하고 물감만 있으면.

지구인S :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편하네요. 저는 사실 되게 신경이 쓰이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야하나 했는데, 연장선상 안에서의 엔딩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깔마 : 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해서 하고. 저희가 준비한 걸 각자 사진해서 얘기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영씨가 지금 옷 준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각자 할 수 있는 걸 준비해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재춘 : 맞아요. 결정에 따르는 거죠.

깔마 : 선생님 시간이 안 된다던가, 우리 시간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임재춘 : 이런 말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각자가 해왔던 것들을 하면 굳이 초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한다기보다 그냥 일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 정도로 문화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사를 초청한다는 건 조금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할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사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터뷰를 청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누군가가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돌리기만 해도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것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성사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만나지 못했다.

민병은 : 결론으로써 만나지 못할 수 있지만, 과정으로 진행하는 거죠.

임재춘 : 그러면 다음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오랜만에 만나는 임재춘 강사님에, 참여자들의 얼굴이 반가움으로 빛났다. 당장 다가오는 다음 주차 졸업식의 기획을 위해 이들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경험을 통해 그간의 수업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까? ‘딴 짓’의 중요성에 대해 나눴던 만큼, 각자의 딴 짓을 간증할 수 있는 ‘딴 짓 간증 포럼’은 어떻게? ‘여행’을 컨셉으로 입학식을 진행했으니, 여행의 마무리를 테마로 하면 어떨까? 각자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지구인S : 혹시 비건 파티를 준비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주디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고기 없이 하는 게 비건이 아니에요? 어떤 게 비건이예요?

정다운 : 단계가 여러 개 있어요.

지구인S : 저는 비건식을 하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가 여기 와서 뭔가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죠. 수원에 비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시락처럼 만들어주기도 하고, 풀 세트로 요가랑 같이 음식 도시락이랑 같이 나눔을 하는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이왕 한번 먹는다면 그런 체험 형식으로 풀어봐도 되 않을까 싶어요. 고기는 많이 먹잖아요.

깔마 :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거지.

지구인S :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민병은 : 우리 어쨌든 그날도 식사를 하긴 하니까요.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임재춘 : 비건 음식은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유기농에서 나아가서 약간 생태적인 관심이나 실천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다 이상인 것 같아요.

깔마 : 아, 전에 말했던 타투 스티커는 어떠세요. 그때 말했듯이 의상은 앞치마로 하고, 스티커 사서 타투 한 번 할까요?

주디 : 요즘에 활동 때문에 타투 해봤는데, 물만 딱 묻혀서 삭 하면 돼요.

깔마 : 그러면 그걸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고르면 될까요?

지구인S : 여러분 조금 더 의미를 두자면, 아예 딴 짓 하기잖아요? 타투가 글자로도 되나요?

조은정 : 레터링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지구인S : 우리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내가 그날 한 줄 말하게 한 줄 문장 꽂혔던 한 줄 하나의 단어. 그런 걸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조은정 : 그건 아마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글자 수를 아마 드려야 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웃음)

깔마 : 레터링 스티커도 저희 집에 있거든요. 잘 안 하는데 혼자서 작년에 미술관 갈 때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보자 이려고 사봤어요.

임재춘 : 저는 여름에 이걸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겨울에는 별로 안 보이니까. 발목에다 했는데 애들이랑 많이 해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집에 남은 게 있나 보고 보내줄게요.

조은정 : 아니 그냥 그날 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동 웃음)

깔마 : 레터링을 좀 넉넉하게 해서 우리가 키워드 잡은 걸로 하는 것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자라던가.

정다운 : 자음, 모음이 있는데 예쁘진 않은 거 같아요. 영문도 있어요.

깔마 : 그래서 '딴 짓'이면 '다금지웃'하고.

지구인S : 또 동네를 신선하게 보면 'fresh' 하고.

조은정 : 음식은 비건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깔마 : 그러면 내일 저녁까지 각자 특방에 올려보죠 그리고 대장 쌤한테 온갖 가발과 다 가져오라고 해야겠어요.

주디 : 그 선생님이 가발이 있어요?

깔마 : 그거 하는 팀이에요.

토리 : 저는 그때 뮤지컬을 하신다고 해서, 그럼 혹시 우리에게 이 공연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여쭙고 싶었어요.

깔마 : 지금 자리에 없거나,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생각했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 정리를 또 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구인S :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는 여러분의 사진이랑 같이 글을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런 과정을 나 혼자 좀 찍어보고, 뭐가도 해보고 그런 걸 나중에 취합해서 남겨두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요.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 음식을 알아보는 과정, 비건에 대해서 찾아보는 과정 같은 것들이요.

깔마 : 다들 조금 얼떨떨하시죠?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칠판에 적으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도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다만, 각자의 활동이 한창 바쁜 11월 말이기에 누가 진행을 할 것인지도 관건. 모두가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 참여자들은 서로를 배려해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각자가 준비해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를 맞이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옷을 만드는 나영이 이날의 드레스코드를, 업사이클을 통한 장식에 자신 있는 주디가 공간 데코를, 깔마만의 야매 습식 수채화 프로그램과 지구인 S가 주도하는 작은 사진전 등. 소소하지만 다채로운 건의가 이루어졌다.

임재춘 : 사실 오늘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꼭 '교육 과정의 마무리' 이런 의례들을 하잖아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늘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의례적으로 해왔는데, 의례적인 것이 좋은 의미에서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어땠는지를 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오히려 그런 의례 때문에 소모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뭔가를 마무리하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죠. 난 뭘 느꼈지? 뭘 보여주지? 뭘 느꼈어야만 할 것 같은. (일동 웃음)

토리 : 저 어제 한참 고민했어요. 저는 감정이 없나 봐요. 왜 감정이입이 안 되지? (웃음)

임재춘 : 다들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내 어떤 일상들처럼 그런 하루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준비하기보다는 그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어쨌든 매듭을 짓는 날이니까 그냥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실천해 볼 수 있는 원데이 실천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캐주얼함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정리될 필요성이 어느 순간에 또 오겠죠. 그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리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게 숙제 였는데,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많이 찾아가서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각자가 그런 사람인데, 서로 공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이라든가 내 생각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나.

오늘 '나를 바꾸는 10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과정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모여 있을 때,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10분 이내라는 시간적 규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졸업식을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프리젠테이션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깔마 : A4용지 한 장으로 써오라고 하셨어요.

임재춘 : 그럼 그렇게 해요. 오히려 어떨 때는 강사나 진행자, 혹은 기획자로 이렇게 앞에 서기도 하시잖아요. 그 애티튜드, 그 상황으로 조금 저희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해 주시겠어요? 바로 시작해 보죠.

나를 바꾸는 10분 | 깔마(신지은)

프로그램 공지를 일주일 앞당겨서 해 버렸다. 다음 주 행사를 이번 주 일요일에 해버렸다. 오 분간은 아니 이런 일이! 그러다 빨리 빨리 수습을 했다. 프로그램은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하기로.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기운이 뭔가로 맞춰지는 이 느낌은 뭘까? 역시 나만의 생각이겠지. 뭐, 나만의 착각이든, 실제로 기운 같은 게 한 곳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요즈음 나의 이야기는 이렇다.

1. 우연

실수다. 어떻게 일정을 잘 못 공지할 수 있지, 반성을 해야 하나, 정신이 없는 환경과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하나, 그리고 싶지 않다. 실수와 착각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다가온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예측과 계획에 익숙한 사람이다, 나는. 관찰하고,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을 고안하고, 실행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관찰하고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고 방식을 고안해야 안전하다고 느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생명과 자연의 탄생과 죽음이 '우연'에서 기인한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부터였는지, 2014년 세월호로 시작된 우울과 비관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우연'의 감각을 훈련받았는지도.

활짝학교에서 나는 이야기, 전해 받은 메시지 안에도 '우연'이 나를 움직였다. 만 짓, 귀 기울이고 듣기, 당사자성 등등 문화는 예술은 무엇보다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닐까 싶었다. 이야기와 메시지의 내용뿐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같이 하는 일, 바람과 함께 차 안에서 나는 수다, 이전과 다른 자리에서 만난 강사, 낯설지만 익숙한 누군가의 팔과 울음, 먼 곳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 왜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느껴질까?

2. 플랜B 없는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이 실패했을 경우 플랜 B를 생각했다. 삼양동과 번동의 사례를 듣고 이거구나 이래서 내 공적 삶의 일부와 지금의 마을 운동이 안 되는구나 하다가, 문득 나의 플랜B가 부끄러워졌다. 플랜 B라는 건, 결국 나의 예측과 계획의 일부 아닌가.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일은 나만의 플랜 B를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만큼 살면 되고, 일하면 된다. 듣고 보고 움직이고, 플랜A를 계속 계속 실천하는 거다. 내 몸이 위치한 곳에서, 내가 맺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우연과 우연을 받아들이면서.

3. 당사자성

당사자성에 대해서 별 의식을 안 했던 것 같다. 타인을 위한 기획, 공공의 기획을 한 것도 아니면서. 우이동에서 안산까지 오는 길에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문제라면 좁은 반경 안에서 해결하기도 했고, 요즘은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따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 속에서 관찰하고 탐색하고 실행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아이들처럼 함께 하는 사람이 내 당사자성일까 그러고 있다 또 깨달았다. 아 당사자성이 당사자

성으로 떠오르는 순간은, 뭔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 내게 닥친 어렵고 불편한 상황은 뭐지 하고.

4. 낮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닥칠 예측 불허의 상황, 지원 사업이 사라진다는 사실, 정책 방향이 나 같은 일개 개인에게는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곤궁하면 행복지수도 떨어진다는데, 곧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걸까? 나의 당사자성은 그리하여. 낮선, 낮선 걸 힘들어 하는, 그래서 견뎌야 하는 이 낮쌌을 맞닥뜨리는 것으로부터.

5. 우연에 기대는 기획자, 뒷걸음치다 뭔가를 얻는 기획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즐기는 것까지는 아직 못하겠고, 기획자, 돈과 안전감이 없어도 씩씩한 기획자, 그게 나다.

덧붙인다면 타인과 현실에 귀를 기울이는 기획자, 나를 드러내는 걸 관계의 출발로 삼는 기획자(이 부분은 임재춘 선생님과 이재경 선생님께 감사를)가 나다.

이상 <활짝학교>라는 여행이 내게 준 것들.



나를 바꾸는 10분 | 나영(이나영)

처음 수업을 신청했을 때는 참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머리 속에는 질문들이 가득해졌고 무거운 마음도 생겼어요. 지금도 다 정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리한 문화는 일상속 사람과의 소통이었어요.

누구나 존재감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면 그게 문화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니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문장은 재미난 사건 만들기였어요. 올해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을 통해 [참좋은수다]에서 낮12시 패션이야기를 기획하고, 실행해보면서 옷 만드는 작업이 각 개인의 스타일과 삶의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옷은 삶에 있어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름이 이해되고 공감되어지는 소통의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 서로 소통하게 한다면 그것이 문화이지 않을까 해요.

이 수업을 통해 내년에도 버려지는 옷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려는 기획을 세우게 되었고,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활짝학교>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고영직 문학평론가님의 수업 중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나를 바꾸는 10분 | 주디(주현진)

나는 사람이 안 변한다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가 변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변했다. 하지만 언제고 또 원상복구 되는가는 시간문제지만 말이다.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난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

난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걸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지만, 난 나름 정의롭고 솔직하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집에서는 정리 안하고, 바깥일만 하는 엄마요 아내다. 오지랖 넓은 아줌마로 남의 일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 바깥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며 나를 합리화 한다. 활짝 학교에 결석 없이 잘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의 희생을 동반했음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올 해 너무 잘한 일 중 하나가 되었으니 너무 좋다. 강사님들의 멋진 강의와 다른 디자이너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과 타 지역의 상황을 간접 경험하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글을 쓰게 되었다. 나를 바꾸는 10분은 글쓰기 좋은 말 나누기 경청하기 책 읽기 이렇게 정의해 볼까?

남들과의 관계도 정리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거 같다. 남들 생각해서 너무 많이 참으면 내가 아파질 게 싫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 아픔으로 나는 또 변하겠지. 아무튼 나는 그냥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 난 나이 60에 경차를 몰고 다니고, 무주택자임에도 창피하지 않다. 당근에서 옷을 사 입어도 행복하다. 정 말이지 작은 거에 만족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다. 얼마 전 딸이 수시로 서울에 있는 세종대에 합격했다. 난 그 사실이 그냥 좋았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상위권대학을 목표로 해서 그 대학은 말 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프기도 한다. 누군가는 꿈을 크게 가지라 한다. 그래야 좀 더 그 꿈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외치고 싶다. 난 지금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나를 바꿔야 하는 걸까? 그래!!! 결심 했어. 조금씩 변하는 모습으로 나를 아니 내 생활을 내 미래를 바꾸는 것으로…….

나를 바꾸는 10분 | 지구인S(이수경)

‘나를 바꾼 5가지 문장’

활짝 학교에 수업을 들으면서 나에게 가장 키워드가 된 문장은 다섯가지다.

1. 내가 장르다
2. 내 삶이 예술이다
3.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선한 것”±을 찾자
4. 동네에서 놀자
5. 누구나 늙어가는 존재이다

- 내가 장르다.

나는 50대, 여성, 집안일이나 흘러가는 만남 보다는 재미있는 일, 그림 그리는 일, 새로운 것에 대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서사보다 서정, 판타지와 로맨스, 재즈 장르를 좋아한다. 나와 비슷한 장르의 사람들 있지 않을까?

- 내 삶이 예술이다.

내 일상생활이 예술이 될 수 있고, 문화가 되는 일은 너무 근사한 일이다. 나는 내 생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기획자”±, “생활문화 디자이너”±이다.

-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선한 것을 찾자

딴 짓하기, 새롭게 보기, 다르게 보기를 통해 “신선한 것”±, “새롭게 기획”±해 보자.

- 동네에서 놀자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 돌아보자. 동네 구석구석을 신선하게 바라보자. 일상을 문제화해서 이슈화 하고 해결하는 즐거움을 동네에서 가져보자.

ex, “동네에서 놀기-등글게 등글게 짹”±, “폴링 in 동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동네 인맥자랑”±

- 누구나 늙어가는 존재이다.

내 스스로 나이에 얽매이지 말자.

누구나 늙어가는 존재이다. 언제 어떻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상상이 즐거울 때가 시작할 때다



나를 바꾸는 10분 | 바람(권성혜)

난 길을 잃었어. 난 방향을 모르겠어.

10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이고 내뱉은 말이다. 생활인으로 20년을 살면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이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 ‘급여’가 ‘나의 의미 있는 일’이 되어 주었다. ‘급여’를 내려놓으려는 시점에서 비로소 ‘나’를 보았다. ‘내 삶에 방향성은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줄 것인가.’까지. 이 모든 질문이 나를 흔들었다.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돌아보았다. 나를 앞서서 ‘같은 세상’을 산 사람은 없다. 세상은 급격했고, 다양해지고, 무엇보다 생활인으로 수명이 너무나 길어졌다. 나의 40대에 50대 후반에 생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내가 50대가 되니 60대 후반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나이와 관계없이 학문적이거나 자신만의 세상을 죽는 날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을 주위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 이때까지 생활인으로 형성해온 생활 환경과 다른 환경을 맞게 되는 사람들, 급여가 주는 단순한 생활인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사회적 정서가 불편한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삶에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삶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걸던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변하는 삶의 방식이 궁금해서 끼웃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내 처음 삶에 방향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 맞다. 삶은 늘 새롭다. 첫발 떼기가 두렵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힘들어하는 중에 난 ‘활짝 학교’를 만났다. ‘활짝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다르게 보고, 뒤집어 보고, 전환의 계기는 질문에 있고, 질문이 본질에 닿으면 내 길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문제의 이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 답하기’를 말해주었다.

이제

나는

스스로 문화를 형성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자극받고 만들어가는 것이

내 방향성임을

나를 바꾸는 10분 | 토리(최윤희)

출퇴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년을 고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다.
 막상 털고 나오니 몇 달은 엄청 재미있었다.
 이제는 무엇을 하고 놀까?
 앞으로 40년 동안 쪽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나만의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던 중 접하게 된 마켓은 나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
 네모난 사무실에서 네모난 책상 위에 네모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나 스스로 내가 하고픈 일들 해 내가며 즐거워하는 내 모습에서 봤을 땐
 이제는 네모난 시멘트 사무실이 아닌 푸르르고 넓은
 광장들이 내 사무실이 되었다.
 이제서야 문득 든 생각이
 나는 지난 몇 년 간 계속 딴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첫 번째 딴 짓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한 것,
 두 번째 딴 짓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계속 나에게 물은 일들.
 세 번째 딴 짓은 아직도 내가 여기서 생활문화라는
 애매모호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에게겐 꽃대가 아닌 꽃으로 살고 싶은
 몸부림이라 생각된다.
 나는 들에 핀 아주 작디작은 야생화라도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우려
 계속적인 노력이란 걸 해 볼 것이다.

앞으로의 딴 짓은
 '나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가 아닌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같이할래?'
 먼저 손 내밀고 당겨주는 사람으로
 이 애매모호한 생활문화를 이어가고 싶다.
 우물 안 사람에서 우물 밖 사람으로 탈출을 바라며...



결정된 프로그램과 주도자

#진행방식: 다음 프로그램 운영자가 중앙의 종을 타종

#음식: 비건식 (토리)

#의상: 앞치마 (나영), 인상 깊은 문구 레터링 타투 (재단)

#공간데코: 업사이클링재료를 활용한 '출발식' 테마 (주디)

#인상 깊은 문장 전시 (각자)

#블라인드 '비공식 수료증' 수여식

#사진전: 가장 좋아하는 공간 (지구인 S)

#어항으로 질문 걸기 (나영)

#제멋대로 습식수채화 (갈마)

#배워본 적 없지만 마사지 (주디)

#내 맘대로 푸드테라피 (바람)

#창작뮤지컬 대본 읽기 체험 (대장)

#선물증정식

#개인 인터뷰: 카메라와 나 (인터뷰 룸에서 각자 홀로)



우리는 졸업식의 이름을 '출발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활짝 학교를 통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후 현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던 별나씨의 아이디어였다. 사실은 졸업식에 맞는 음악을 찾다, 이진테! 라고 고른 노래 제목이 '출발'이었다고... 별나씨가 히든 스토리를 전해주었다. 이야기를 듣던 참여자들은 타이틀을 바로 '출발식'으로 바꿔버렸다. 우리가 모인 공간에선 김동률의 '출발'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출발식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주디였다. 텅 비어있던 뒷벽 칠판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온갖 종이와 노끈, 심지어는 나뭇가지까지 전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선 칠판을 하나씩 꾸미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작 시각이 한참 남았는데도 뒤이어 지구인 S와 나영도 도착했다. 그녀들 또한 각자 맡은 사진전과 질문 뽑기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호스트이자 손님인 시간, 다른 이들 또한 속속들이 도착하는 대로 인상 깊은 문구를 붙이거나 준비해 온 재료를 꺼내놓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각자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을 소개하는 사진전으로 이어졌다. 아기자기한 사진 옆에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함께했다.

그다음으로 사람들을 집중시킨 것은 푸드테라피였다. 여러 가지 과일들로 각자 표현해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 질문은 있으나 답이 없는 주고받는 이야기. 애호박으로 이루어진 코를 보며, 누군가는 블루베리 같은 눈

[사진전 공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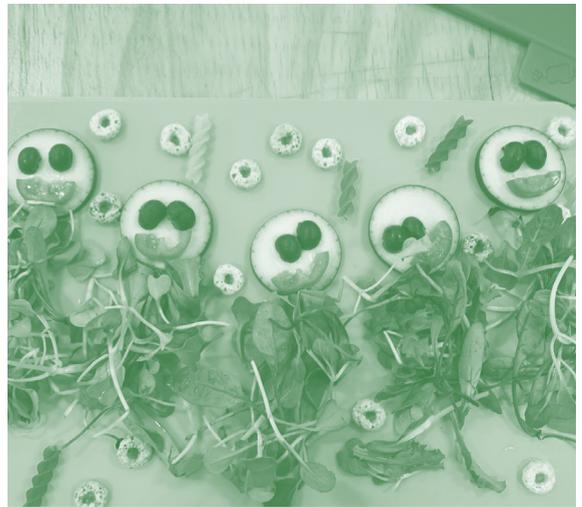
함께하는 멤버들, 가장 좋아하는 공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공간, 알리고 싶은 동네 모습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1컷만 보내주세요^^ (힘드시겠지만)

1컷 사진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A4용지 반 이상 글로 적어주세요

(출발식 때 낭독예정)

이 사진 찍기의 취지는 출발식을 앞둔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공간, 지역, 사람, 생각들을 더 알고 싶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진 전시회입니다



동자를 데굴데굴 굴렸다.

막간을 이용한 깜짝 퀴즈와 어항으로 질문 걸기, 그리고 쪽 대본 리딩이 이어졌다. 제각기 다르게 생긴 물고기의 배를 열면, 센스 있는 질문이 참여자를 반겼고, 한 줄씩 돌아가며 쪽 대본을 읽어나갔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울 때쯤, 수료증 수여식이 이어졌다. 서로를 떠올리며 자신을 숨긴 채 수료증을 받을 사람만 생각해서 작성한 블라인드 비공식 수료증. 그 옆 칸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어지는 공식 수료증이 함께



있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울 때쯤, 수료증 수여식이 이어졌다. 서로를 떠올리며 자신을 숨긴 채 수료증을 받을 사람만 생각해서 작성한 블라인드 비공식 수료증. 그 옆 칸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어지는 공식 수료증이 함께 있었다.

마지막은 첫날 입학식 여행 갔을 때, 각자 마음으로 준비했던 선물을 개봉하는 시간. 선물 증정식 순서였다.

‘맞다, 이때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가져왔어요.’, ‘사실 그날 지참한 선물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 추가 선물을 오늘 가져왔어요.’ 다들 그날의 선물을 바라보며, 어느덧 마무리를 앞둔 <활짝학교>를 회상하는 듯했다.

이로써 누군가에게는 여행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이었던 10주차의 과정이 끝나치게 되었다. 비록 올해의 수업은 끝이 났지만, 영감을 받은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가이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난, 활짝학교에서 퍼즐 한 조각을 찾았다.’ | 바람(권성혜)

문화, 참 좋아하는 단어다. 폼나고 근사하고 있어 보인다.

생활문화, 그건 뭐까? ‘어쩌면 생활 문화가 이런 것일지도 몰라’라는 막연함을 느낄 즈음 <활짝학교>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비날 (마을에서는 넉네임을 부르는데 내 넉네임은 비오는 날이다. 줄여서 비날이라고 부르다) 저랑 같이 다녀요.” 깔마(깔깔 마녀)의 전화를 받고 고민했다. 하고 싶지만,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 망설였다. 무엇보다 문화가 주는 가슴 떨리는 단어의 유혹이 너무 강렬했기에.

한 계절 전부터 일은 재미도 신나지도 않아 지쳐있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섞여 구분도 되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조차 의무로 다가왔다. 시작할 때는 하고 싶었던 일들이 늘어 화, 수, 목요일은 끝나고 귀가하면 10시였다. 욕심이 과했다. 마음이 지쳐서일까, 체력도 바닥을 치고 있었다.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내 영역 밖이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거절도 못 하고 가슴 앓이 중이었다. 작은 물주머니를 달고 누가 건들면 툭 터지는 눈물을 주체 못 하고 징징거리는 날들이었다.

다 던지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러나 내 삶의 퍼즐 한 조각이 찾고 싶다는 갈망과 길을 잃었다는 늪에서 나오고 싶었다. 퍼즐이 한 조각이 채우고 싶었다. 그 퍼즐이 정답일 거라고 믿었다. 답이 아닌 정답을 찾고 있었다. 정답은 있는데 나만 정답을 몰라 헤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 ‘그래, <활짝학교>는 내게 정답을 줄지도 몰라’라는 기대에 지원했다.

지원서를 쓰면서 ‘생활문화’에 대해 작성하는 빈칸에

‘우리는 연결을 꿈꾸고 그렇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쓴다. 점으로 있는 우리를 연결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활문화라 생각한다. 마을에서 생활문화기획자가 <하고하고 드로잉>이라는 수업을 열었다. 단숨에 22명이 모였다. 밴드를 열고 일주일 동안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그릴 수 있는 수준의 그림을 간단한 스토리와 함께 올리는데 거의 매일 올라왔다. 그리고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이리 많았던가. 놀라웠다. 생활문화 힘을 느꼈다.’

라고 썼다.

<활짝 에어 플레인>, 여행 컨셉으로 진행된 첫 시간.

비에 젖어가는 상상 캠퍼스의 가을 색의 두근거림. 여행을 위한 티켓, 환대를 위해 준비된 도시락 세트, 어두운 스튜디오에 작은 모닥불, 화면 가득 푸른 하늘과 파도 소리, 같이 여행을 떠나는 낯선 이들에 대한 호기심과 진행될 여행에 대한 설렘, 언뜻언뜻 보이는 속살 같은 - 깔깔 마녀, 토리, Judy, 지구인’s, 나영, 별나씨, 대장, 그리고 나-마음들. 이 여정에서 난 정답을 찾으리라 기대했다. 부디 내게 작은 균열이 생겨 그 균열로 나의 인식

을 해체하고 정답으로 꽉 채워지기를.

‘관찰과 발견’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판짓의 미학,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뒤집어 보기, 다르게 보기. 낮설게 보기, 새롭게 보기, 집중해서 보기, 맥락으로 듣기, 질문하면서 보기, 날카롭게 보기, 신선하게 보기, 문제의 이면 보기’ 등등을 듣고 나누면서 조금씩 내 속에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틀, 프레임을 툭툭 치면서 쑥 올라오는 싹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개별적 존재로 삶, 그 자체가 문화다.’라는 사실을. 그럼 내가 찾는 정답은 무엇인가? 정답이 없었구나. 정답이 없는 삶에서 정답을 찾고 있었다는 자각은 어느 순간 확 다가왔다. 혼자 가능했을까? 아니,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들과 자신들의 언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 내 속에서 휘몰아치던 바람은 그런 자각을 선물해 주었다. 강사들이 던지는 질문에서, 나와는 다른 시간을 통과해 온 여행자들의 이야기에서, 지금 자신을 흔들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에서, 싹을 키우고, 나무로 자랐다.

‘낮선 것을 견디며 현실에서 단서를 발견해야 하죠’

‘늙은이는 언제부터 늙은인가. 우리는 모두가 늙어가는 존재인 걸’

‘질문이 본질에 닿으면 내 길에 네비게이션이 된다’

‘호기심을 장착하고 질문을 발사 하죠’

‘예전 직장에서는 칭기는 게 익숙했는데, 막 퍼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상했어요. 왜 저리 다 퍼주기만 하는 걸까’

‘가족도 거리를 두고 물러서니 관계가 달라졌어요’

‘중앙에 저를 크게 표현한 것은 앞으로는 저를 중심에 두고 살려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동춘은 “어떻게 놀지?”라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색깔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일상을 문제화하고, 빛나는 내 일상을 꿈꿔요’

나누는 질문과 말들은 내 속에서 자라고 가치를 치며 풍성해졌다. ‘내가 장르’가 되는 삶은, 정답이 없다는 자각은 내가 찾던 질문의 퍼즐 조각이었다. 몇 년 동안 ‘길을 잃었다’라고 중얼거렸는데 내가 떼는 걸음이 ‘길’이 되어준다는 놀라운 명제로 연결되어주었다. 누군가가 갔던 길을 찾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근사해 보여서 쫓아가기 위해 얼마나 헤맸던가. ‘전환의 계기를 위한 질문’을 하고 나니 ‘내가 떼는 걸음이 답이고, 길이다.’

졸업식이라 쓰고 ‘출발’이라 불렀던 마지막 시간은 ‘내가 떼는 걸음이 길’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가 아니고 ‘야매’면 어떤가?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야매 사진사들이 찍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전시>, <야매 습식으로 재미있게 놀아보기>. <야매 푸드테라피로 자신을 표현하기>, <쪽 대본으로 야매

뮤지컬하기>, <야매로 만든 어항 속 질문에 진솔하게 자신을 들어내>는 자체가 우리만의 길이 되어주었다.

어떤 이는 10주 동안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냐고 회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찰나의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존재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고, 참여하는가에 따라 10주는 내 속에 우주가 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활짝 학교 10주를 통해 내 속에 새로운 영역의 공간을 만들었다.

자신의 귀한 경험을 공유해준 여행자 동료들, 시작과 끝에서 우리를 모아준 민병은 교장 선생님, 편한 여행을 위해 애쓰신 정다운 선생님, 매시간 우리의 인식의 세상에 질문 던지고 파장을 만들어주신 강사님들, 대접 받았던 도시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분

기획 | 경기문화재단

총괄 |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

책임 | 최진호 생활문화팀장

진행 | 임은옥, 조은정, 정다운

사업추진단 | 민병은, 심한기, 강명숙

참여 강사 | 고영직, 고재열, 김민정, 김원익, 박도빈, 배영은, 유다원, 이재경, 이지은, 임재춘

그 외 도움 | 협동조합 참좋은수다, 스튜디오판

표지 및 내지 디자인 | 날아라 물살이

발행인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66

www.ggcf.kr / <https://glife.ggcf.kr>

발행일 | 2022.06.24

© 경기문화재단, 2022

ISBN 978-89-999-0224-6

본권에 실린 글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과 도판을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